

2007년 2월

박사 학위 논문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경영학과

강 은 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ization of Tattooing

2007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디자인 경영학과

강 은 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필

이 논문을 미술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경영학과

강 은 주

강은주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백 수 인</u>	Ⓜ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인 경</u>	Ⓜ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한 선 주</u>	Ⓜ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손 영 미</u>	Ⓜ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정 필</u>	Ⓜ

2006년 12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 2 장. 문신의 일반적 고찰	4
제1절. 문신의 개념과 역사	4
1. 문신의 개념과 어원.....	4
2. 문신의 기원과 역사.....	5
가. 문신의 기원.....	5
나. 지역별 문신의 역사.....	6
3. 문신 시술 방법과 유형.....	16
가. 문신 시술 방법.....	16
나. 문신 시술 과정.....	24
다. 문신의 유형별 분류.....	29
제2절. 문신의 영역	36
1. 헤너.....	36
가. 헤너의 개념.....	36
나. 헤너의 역사.....	37
다. 헤너의 기능.....	38
라. 헤너의 종류.....	39
2. 반영구 화장	40
가. 반영구 화장의 개념.....	40
나. 반영구 화장의 역사.....	41
다. 반영구 화장의 방법.....	42

제 3 장 . 문신의 사회적 표현 및 의미.....	45
제1절 . 사회성 표현.....	45
제2절 . 연정의 표시.....	47
제3절 . 범죄자 표시.....	48
제4절 . 집단 표시.....	48
제5절 . 자아 표현.....	49
제 4 장 . 한국 문신의 역사와 현재.....	50
제1절 . 한국 문신의 기원과 금기의 역사.....	50
1. 한국 문신의 기원.....	50
2. 금기성(禁忌性)의 역사.....	50
가. 신분 구별과 범죄 표식으로서의 문신의 활용.....	51
나. 유교적인 가치관의 영향.....	52
3. 한국 문신의 현재.....	53
제2절 대중문화로서 문신의 인식변화.....	55
제3절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분석.....	59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0
가. 자료 수집.....	59
나. 분석 방법.....	59
다. 설문지 구성.....	60
2. 실증 분석 결과.....	60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60
나.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63
3. 조사 결과의 요약.....	76
제 5 장 . 문신에 대한 실정법의 실제와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	84
제1절 . 문신의 불법성.....	84
제2절 . 문신의 합법화에 대한 전망.....	85

제3절. 미용으로서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	88
1.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보완점	88
2.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외국 법률 사례.....	90
가. 뉴욕시 행정법상의 문신에 관한 사항.....	90
나.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규약.....	93
3. 한국 미용 문신 시술 행위 규제법안 제안.....	95
제 6 장. 결론.....	97
참고문헌.....	103
부 록.....	108

표 목 차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61
표 4-2 빈도 분석 결과표.....	76
표 4-3 문신의 이미지 * 일반적 특성 교차표.....	78
표 4-4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일반적 특성 교차표.....	79
표 4-5 문신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에 대한 인식 * 일반적 특성 교차표..	80
표 4-6 문신을 할 의향 * 일반적 특성 교차표.....	81
표 4-7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생각 * 일반적 특성 교차표.....	82
표 4-8 연령과의 교차표.....	83

그림 목 차

그림 2-1 냉동인간 외씨	5
그림 2-2 아무네트(Amunet) 여사제의 문신	7
그림 2-3 사자(死者)의 신부 소상문신.....	7
그림 2-4 요크 공이 일본인 문신 전문가 호리 치요(Hori Chiyo)에게 문신을 받는 장면.	8
그림 2-5 프랑스의 죄수.....	9
그림 2-6 미라들에 나타난 다양한 동물 형상의 문신.....	9
그림 2-7 『수호지』의 일본판 그림책.....	10
그림 2-8 『수호지』의 일본판 그림책을 보고 문신사들이 시술한 문신.....	10
그림 2-9 뉴질랜드의 목각.....	11
그림 2-10 목각술을 이용한 뉴질랜드 전통 문신 ‘모코’	11
그림 2-11 사모아인의 전통문신 ‘타타우’	12
그림 2-12 보르네오섬의 다양한 문신 디자인.....	13
그림 2-13 난절법을 이용해 문신을 한 아프리카인들.....	14
그림 2-14 사자(死者)들의 살갓에 보존되어 있는 초기 미국인들의 문신.....	15
그림 2-15 상흔문신을 하고 있는 누바족 여성.....	17
그림 2-16 누바족 여성의 상흔 문신.....	17
그림 2-17 자문신에 사용된 목각 스탠실.....	18
그림 2-18 말케사스섬 원주민의 문신한 모습을 그린 그림.....	18
그림 2-19 최초의 전기 문신 기계.....	19
그림 2-20 피부의 구조.....	19
그림 2-21 문신 기계의 구조 및 명칭.....	20
그림 2-22 여러 가지 타입의 바늘 종류.....	21
그림 2-23 문신용 잉크 컬러.....	22
그림 2-24 파워 서플라이	23
그림 2-25 멸균기.....	23
그림 2-26 초음파 세척기.....	23
그림 2-27 밑그림 스탠실 작업.....	28

그림 2-28 디자인 윤곽 작업(Outlining)	28
그림 2-29 음영 작업(Shading).....	28
그림 2-30 블랙 앤 그레이(Black & Grey).....	29
그림 2-31 올드 스쿨(Old School).....	30
그림 2-32 뉴 스쿨(New School).....	31
그림 2-33 「타투타임(Tattoo time)」 창간호의 ‘뉴 트라이벌리즘’ 특집기사	32
그림 2-34 「타투타임(Tattoo time)」 창간호 표지.....	32
그림 2-35 폴리네시아인의 문신 문양.....	32
그림 2-36 현대의 트라이벌 문양.....	32
그림 2-37 이레즈미(Irezumi).....	33
그림 2-38 바이오메카니컬(Biomechanical).....	34
그림 2-39 기존의 문신 문양.....	35
그림 2-40 새로운 문신으로 재작업 한 문신.....	35
그림 2-41 헤너 가루.....	36
그림 2-42 블랙 헤너.....	39
그림 2-43 붉은 헤너.....	39
그림 2-44 각종 로터리식 머신.....	43
그림 2-45 로터리 머신의 구조 및 명칭.....	43
그림 3- 1 사모아 남성의 문신하는 모습.....	46
그림 3- 2 사모아 여성의 문신하는 모습.....	46
그림 3- 3 마오리족 족장의 얼굴 문신.....	47
그림 3- 4 마오리족 여성의 입술문신.....	47
그림 3- 5 일본 전과자 문신의 예.....	48
그림 4- 1 위생적인 문신 샵의 내부.....	54
그림 4- 2 축구 선수 안정환의 문신.....	56
그림 4- 3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의 문신.....	57
그림 4- 4 문신의 이미지.....	63
그림 4- 5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	64
그림 4- 6 문신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65

그림 4- 7 문신을 보았다면 대상은.....	65
그림 4- 8 문신을 보았을 때의 느낌.....	66
그림 4- 9 대상에 대한 문신의 이미지.....	66
그림 4-10 문신한 사람의 예상 분포.....	67
그림 4-11 문신을 하는 이유.....	67
그림 4-12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68
그림 4-13 자기 표현 방식의 문신 활용.....	69
그림 4-14 문신을 해 본 경험.....	70
그림 4-15 문신을 한 목적.....	71
그림 4-16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	71
그림 4-17 문신을 할 의향.....	72
그림 4-18 문신 시술 대상.....	73
그림 4-19 의료인 외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의 불법 인지(認知) 여부.....	73
그림 4-20 문신 관련 구속사건 인지(認知) 여부.....	74
그림 4-21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	74
그림 4-22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방법.....	75
그림 4-23 문신의 유형 규제 대상.....	75

Abstract

A Study on Legalization of Tattooing

By Kang, Eun-ju

Advisor : Prof. Kim, Jung-pil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oday is a multi-cultural era which has various modes of life and self-expression is commonly accepted by most people. Addition to that, new values got to appear in diversity of fields affected by post-modernism at the end of 20th century. With this social atmosphere, recognition of human body began to change and that helped to give birth to the new genre of body art.

However, body art has been existing through men's history under the name of tattoo which was initially developed for a healing method or a occult art.

Through old times of korea, tattoo was mainly used as a symbol of criminals and especially in Cho-sun dynasty it had negative recognition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With changing recognition of tattooing and attitudes towards self-expression, general public's thought about tattoo also has been changed gradually, so it seems to be accepted in a way of beauty culture or art. However, laws and policies are not coping with the situation, which means tattooing in korea is still definite illegal activity. In foreign countries tattooers or similar service providers' treatment is accepted legally.

Checking the issue up on the internet, recognition changing about tattooing seems so obvious that new generation is more likely to approach friendly and express themselves by tattooing more often.

The bottom line is that tattooing is accepted a medical service, not as a beauty art in Korea because needles are used for the procedure. Furthermore, medical works are only permitted to doctors. Most countries overseas approve tattooing as a beauty art and tattooing is a legal activity except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legalizing of tattooing and to propose some alternatives after looking into the general public's understanding of tattoos and examining sever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research about recognition of tattoo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while the respondents generally showed negative response about gangsters' tattoo, they answered affirmatively on sports stars or celebrities' tattooing.

Secondly, in question about the reason of tattooing, the answers are like this: In a way of self-expression(53%), to adorn oneself(16%), and to give someone else overbearing looks(12%).

Thirdly, compared to the opposition(19%), 52% of the respondents was in favor of tattoos which are used as a way of expressing one's individuality such as make-up.

Fourthly, 12% of the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tattooing and 46% of the experienced group showed good feelings about their tattoos, whereas, only 19% regretted their decisions.

Lastly, on the issue of legalizing tattooing, 33% went along with the idea and 28% showed negative attitude. About the appropriate way of legalization, 32%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the license system.

Up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uts forward as follows:

First, to draw the general public's understanding and sympathy of beauty tattooing, there should be prope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econd, it is urgent to introduce some legalization plan such as the license system. After accepting public opinions, organize special committee which consists of various stake-holders.

Third, the medical profession and beauty art profession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closely in various ways.

Lastly,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the younger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on the positive side about tattooing. That shows that there could be som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tattoo and general public's recognition is changing. There are growing needs for getting tattoo so systematic supports and proper policies need to be arranged and amended as soon as possibl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는 서로 다른 의식과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이나 감각을 표출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0세기 말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사회 곳곳의 여러 분야에 나타남에 따라 이전까지만 해도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몸에도 표현하는 바디아트(Body Art)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케 했다. 그러나 바디아트는 20세기 말에 새롭게 생겨난 예술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었을 뿐이다.¹⁾ 왜냐하면 그것은 문신의 형식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문신을 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가 시작된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장과 문신은 동굴의 암벽화보다도 훨씬 이전에 나타난 육체적 변형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 인간의 몸은 인식과 예술의 중심이었으며 영혼세계와 집단의식의 체험의 장으로서 또 다른 세계를 지시하는 메타언어(metalanguage)였다. 즉, 영혼의 세계와 집단의식 등이 몸으로 체현(體現)된 것이 문신이며, 또한 이것은 몸의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였다.²⁾

이처럼 원시시대부터 유래된 문신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류와 함께 해 왔다. 현대 사회에서의 문신은 스포츠 스타나 영화배우, 가수 등의 심볼로써 혹은 패션, 미용행위로서 새로운 대중문화코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약 50만 명 이상³⁾의 문신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문신사(文身師)들만 500여 명⁴⁾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문신을 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의 문신은 이미 익숙해진지 오래고 일반인들의

1) 이현주, 『타투(Tattoo)미학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p.1-2.

2) 이현주, 『원시미술에 나타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 4호 2권, 2003, p.179.

3) 이호승, “문신은 표현의 자유 위한 예술”, 경향신문, 2003. 10. 6.

4) <http://cyworld.nate.com/club/>

문신행위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하는 행위는 예술적인 면을 논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건법이나 병역법,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다. 실제로 최근에 문신 시술 행위가 확산되어지면서 문신사가 구속되고 이의 구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우리나라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병역법 또는 보건법에 관련하여 본다면 문신은 선량한 일반대중들의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탈행위이므로 금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신이 일종의 대중문화예술로, 자신을 가꾸는 미용문화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신에 대한 법률적 금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문신을 둘러싼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우리에게 문신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촉구한다.

대체 문신이란 무엇인가? 누가, 언제, 왜 문신을 하는 것이며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 고통스러운 새기기를 감내하는가?, 과연 일반 사람들은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법은 일반 대중의 법 감정에 의지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다. 만일 대중들이 더 이상 문신행위를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신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문신의 합법화는 앞으로 문신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실정법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이제까지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남아 있던 문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대중문화와 미용문화의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술의 원형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기 위한 행위로서 시작되고 발전된 문신이 더 이상 불법의 그늘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문신 시술 행위가 합법화되려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와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신사의 구속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그 징후의 일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문신 시술 행위를 법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여 문신이 갖는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 주제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문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정립되어야 한다. 올바른 시각정립을 위해서는 문신에 대한 인류학적, 역사적, 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제 2장에서 문신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서 문신의 개념 및 기원과 변천, 문신의 영역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신의 다양한 사회적 표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가설의 증명을 위해서는 마땅히 설문 조사를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제 4장에서는 한국 문신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시대에 따른 대중문화로서의 문신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고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반대중들의 문신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셋째,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마땅히 법적 규제를 타파해야하고, 이에 따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제 5장에서는 문신을 불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법의 실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논의하고 외국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아 합법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모색해 본 후 가칭 「한국 미용 문신 시술행위 규제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 6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초자료조사이다. 선행 연구 자료와 국내외 문헌, 인터넷, 잡지 등을 중심으로 문신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방법이다. 문신 시술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E-mail을 통한 설문의 답장을 참조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문신의 실제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의 사례와 더불어 합법화 방안의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장 문신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문신의 개념과 역사

1. 문신의 개념과 어원

문신은 사람의 살갓에 상처를 내어 색깔이 있는 염료를 피부의 깊은 층 즉, 진피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글자나 문양(무늬) 또는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몸에 치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入墨)이라 불러 졌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 하였다.⁵⁾

문신을 영어로는 'tattoo' 라고 하는데, 이는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항해(1768~1771)에 동행한 영국의 박물학자 조세프 뱅크스(Joseph Banks)가 1769년 타히티(Tahiti)의 탐험일기에 기록한 이후 영국과 여타 유럽의 사용권 지역으로 전파되었다.⁶⁾ 이 말의 어원은 폴리네시아 군도 타히티의 언어 중 'tatau' 에서 유래된 것으로 '치다' 라는 뜻으로 아랍어의 'daqq' 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이 두 단어는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한다.

문신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개념으로서의 문신은 자연으로부터의 위험과 외부의 질병이나 적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 또는 다른 부족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들만을 상징하는 문신으로서 소속집단을 나타냈으며 일부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신분의 상징 표시로도 사용했다. 그러나 문신은 범죄자의 표시로서 문신을 사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멸시하는 표현수단으로 운용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한다.

5) 두산 동아 백과사전연구소 편저,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두산 동아 제10권, 1996, p.591.

6)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르네상스, 2000, p.45.

2. 문신의 기원과 역사

가. 문신의 기원

일반적으로 최초의 문신은 우연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이 검댕이나 재가 묻은 손으로 상처를 문지르고 난 뒤 남은 영구적 자국이 최초의 문신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10월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은 ‘냉동인간 외찌(ötzi the ice man)7)’ (그림2-1)로 장식되었다. 내용은 5천년 가량 된 냉동 상태의 남자 사체 한 구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 근처의 한 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인의 사체 중 가장 그 보존 상태가 좋은 이 냉동인간의 몸 표에는 모두 57개의 문신이 새겨져 남아 있었다. 왼쪽 무릎 안쪽에 십자 무늬 한 개, 신장 위치 쪽에 15cm 길이의 직선형태 문신이 여섯 개, 그리고 양쪽 발목 부위에 수십 개의 평행선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위치로 보아, 관절 부위의 통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신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문신은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2-1 냉동인간 외찌

7) Maarten Hesselt van Dinter, 『The World of TATTOO - An Illustrated History』, KIT Publishers, 2005, pp.26-27.

이러한 문신의 관습은 세계 각 지역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의미로 행해졌으며 발전되고 전파되어 갔다. 그 종류 역시 문신을 새기는 지역이나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다음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외국 여러 나라의 문신의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나. 지역별 문신의 역사

(1)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이집트의 제3대, 4대 왕조는 크레타 섬, 그리스, 페르시아 보다 먼저 국가로 발전해갔으며 많은 문명과 문화를 향유하였다. 그 중에 문신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초기 고고학자들은 문신에 대한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로 인해,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신과 관련된 문서 기록이나 유물, 예술품 등을 사실상 외면해 왔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의 고대 이집트 11왕조(B.C 2160~B.C 1994)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mirra)와 세티 1세(재위 B.C 1317~B.C 1301)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들이 발굴되면서, 예술 형식으로서의 문신을 가능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겨났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고대 이집트 문신의 흔적으로는 1891년 테베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한 여성의 미라가 소상(小像)들과 함께 발굴되었다. 이 미라는 11왕조 시기 테베의 여신 하토르(Hathor)를 모시는 여사제였던 아무네트(Amunet)(그림2-2)⁸⁾의 미라였다. 이 미라의 몸은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팔과 넓적다리에 평행선의 무늬들이 있었고 배꼽 아래쪽에는 타원형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 개의 점과 짧은 가로선들이 모여 있는 이 문신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오직 여성들에게만 허용되던 것으로, 보통 이 여성들은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 문양과 유사한 것이 아무네트와 함께 발견된 소상들인데, 이집트 학자들이 ‘사자(死者)의 신부’(그림2-3)라고 부르는 이 소상들의 배꼽 아래쪽에도 유사한 문신이 있다.

이처럼 B.C 2000년경 이집트에서 출토 된 미라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문신의 풍습은 세계에 문신 관습을 전파하는데 공이 컸다.

8) Gilbert Steve, 『Tattoo History: A Source Book』, New York: Juno Books, 2000,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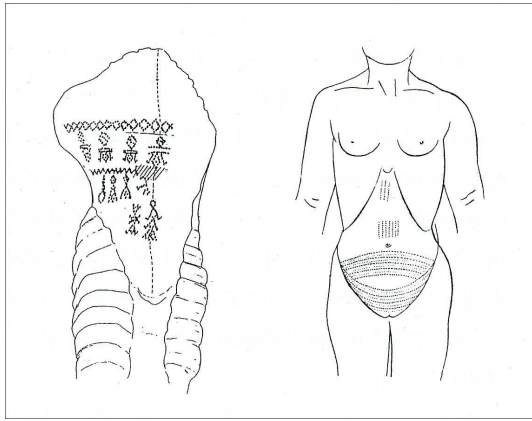


그림2-2 아무네트(Amunet) 여사제의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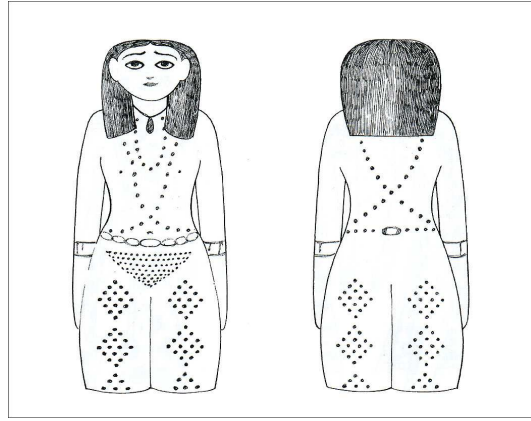


그림2-3 사자(死者)의 신부 소상문신

(2) 중동

구약성서 시대에 많은 이교도 사회에서는 문신 행위를 신성 숭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레위기(Leviticus)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죽은 자를 위해 너의 육신을 베지 말 것이며, 너의 몸에 어떤 표시도 찍지 말지어다.(19:28)’ 이 구절은 교회의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위 있는 성서 구절로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성서학자 M.W. 톰슨(M.W. Thomson)에 의하면, 문신을 좋아했던 모세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방책으로 문신을 들여왔다고도 한다.

(3)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인들이 문신을 배운 것은 페르시아인들을 통해서인데, 그리스 여성들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문신에 매료되었다. 로마에 문신이 들어온 것은 그리스를 통해서이다.

베르길리우스, 세네카, 갈레누스와 같은 로마 작가들에 의하면 많은 수의 노예와 범죄자들에게 문신이 행해졌다고 한다. 에페수스(Ephesus)에서 발견된 법률에 관한 비문에 의하면, 로마 제국 초창기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팔려가는 모든 노예들에게 ‘납세필’ 이라는 단어가 문신으로 새겨졌다고 한다.

4세기 초, 로마 황제에 즉위한 후 기독교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한 콘스탄티누스1세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문신은 당시 죄수나 군인, 검투사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인간의 얼굴이란 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상시키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켈트 족

B.C 1200년~700년경의 시기에 서유럽을 횡단한 켈트 족은 B.C 400년경 영국 제도에 도달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현재의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켈트 족은 풍부한 바다 아트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대청이라는 풀을 이용해 피부에 푸른 색 무늬를 남기는 영구적인 문신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문신의 형태는 대체로 나선형 무늬가 보편적이었는데, 한 개나 두 개 혹은 세 개씩도 그려졌다. 켈트 족의 예술 형식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도 매듭 무늬일 것이다. 여러 개의 선이 복잡한 노끈 모양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다시 서로 꼬이면서 매듭을 이루는 이 무늬는 삶의 관련성을 상징화한 것이다. 또한 초기 미로 문양에서 보였던 발자국이나 열쇠 무늬는 간단한 테두리 장식이나 매우 복잡한 미로형 장식 문양에서도 볼 수 있다. 걸어갈 길이 많은 미로의 의미처럼, 이러한 문양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작은 길들을 상징한다.

(5) 영국

북 선장이 폴리네시아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영국의 탐험가들은 항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문신을 새긴 폴리네시아인들을 동행하고 돌아왔다. 원시적인 원주민과 비교해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강당이나 싸구려 박물관에서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이후 문신은 영국 해군의 전통이 되어, 18세기 중엽 대다수의 영국 항구에는 적어도 한 명의 문신 전문가들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였다.

1862년,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된 웨일스의 왕자는 첫 문신으로 자신의 팔에 예루살렘 십자가를 새겼고, 이후로도 계속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문신을 새기면서 문신은 귀족 사회에서도 유행하기 시작 했다.

1882년에는 그의 아들인 클래런스 공과 요크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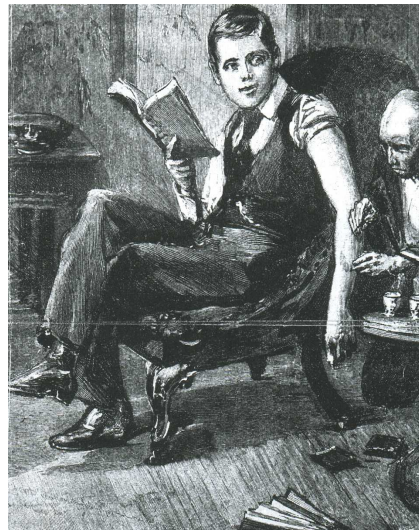


그림2-4 요크 공이 일본인 문신 전문가 호리 치요(Hori Chiyo)에게 문신을 받는 장면

9) Maarten Hesselt van Dinter, 앞의 책, p.47.

(6) 프랑스

18세기, 남태평양으로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많은 프랑스 선원들의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중상류층 사람들은 문신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로 선원, 노동자, 죄수(그림2-5)¹⁰⁾들 사이에 문신이 유행했다. 1861년에는 프랑스의 해군 군의관 모리스 베르송(Maurice Berchon)이 문신으로 인한 발병과 합병증에 대해 연구서를 발표하였고, 그 후로 프랑스 해군과 육군은 군인들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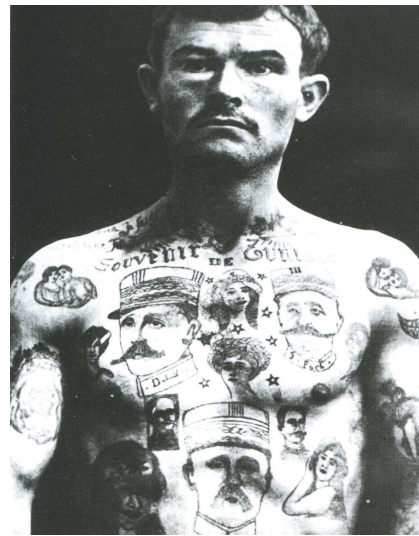


그림2-5 프랑스의 죄수

(7) 파지릭(Pazyryk) 문화

1948년, 러시아와 중국 국경 북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의 고고학자 세르게이 루덴코(Sergei Rudenko)에 의해 여러 개의 무덤, 즉 러시아어로 고분을 뜻하는 ‘쿠르간(kurgan)’ 이 발견되었다. 시베리아 서남부의 알타이 산맥 고지에 위치한 이 일군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그림2-6)¹¹⁾들은 약 2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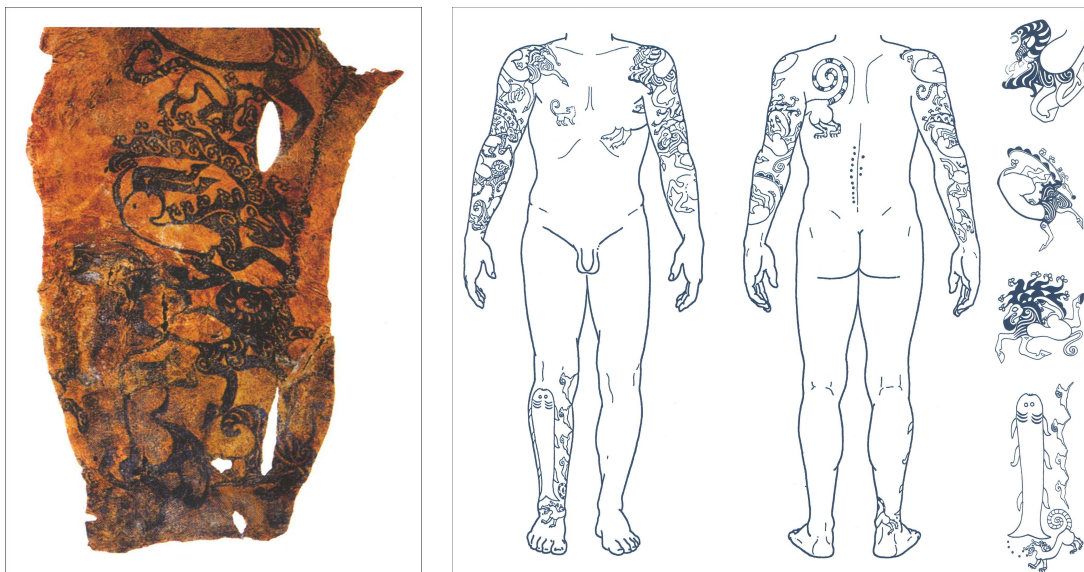


그림2-6 미라들에 나타난 다양한 동물 형상의 문신

10)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164.

11) Maarten Hesselt van Dinter, 앞의 책, pp.28-29.

이 미라들에는 다양한 동물 형상의 문신이 남아 있었다. 그리핀이나 여러 괴물의 모습을 그린 문신은 마술적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동물 문신의 경우는 순전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문신들은 해당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8) 일본

일본 내의 문신 관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297년에 편찬된 중국 왕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일본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고, 몸에는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7세기가 되자 일본 통치자들이 중국의 문화 관습을 따르게 되면서 문신도 덩달아 냉대를 받게 되었다. 17세기 초가 되자 문신은 범죄자와 부랑아를 나타내는 표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당시 도쿄의 명칭이었던 에도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그림 문신이 유행했다. 18세기 중반에 중국 소설 『수호지』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문신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소설 속의 영웅들 대부분이 문신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 다양한 화가들이 소설 속의 문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수호지』의 일본판 그림책(그림2-7)을 만들어냈고 문신사들은 그러한 문양들을 복제하여 시술(그림2-8) 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해 갔다.¹²⁾



그림2-7 『수호지』의 일본판 그림책



그림2-8 『수호지』의 일본판 그림책을 시술한 문신

12) Gilbert Steve, 앞의 책, pp.264-265.

(9)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폴리네시아 지역 중 가장 인상적인 문화를 창출한 부족이다. ‘모코(moko)’라 불리는 마오리족의 문신은 목각(그림2-9)술을 이용해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 것으로, 매우 뛰어난 예술적 기교를 보여준다. 얼굴 전면의 ‘모코’ (그림2-10)는 일종의 구별을 위한 표시로서, 그들의 지위와 혈통, 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전쟁에서의 공적이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기리는 기능도 하였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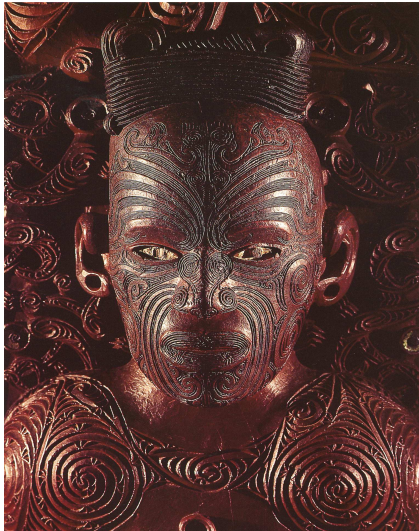


그림2-9 뉴질랜드의 목각



그림2-10 목각술을 이용한 뉴질랜드전통 문신 ‘모코’

(10) 폴리네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권에서 문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폴리네시아의 문신은 고대 사회의 문신 행위 중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다. 폴리네시아인들은 한 사람의 마나(mana), 즉 영적 능력이나 생명력이 문신을 통해 보여 질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 고대 예술은 대부분 전설이나 노래, 종교적 의식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이다. 평생 동안 정교한 기하학적 디자인들이 더해지고, 고쳐지고, 아름답게 꾸며져 문신이 온몸을 뒤덮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사모아 섬에서 행해진 손으로 문신을 새기는 전통, 일명 ‘타타우(tatau)’ (그림2-11)¹⁴⁾는 추장이나 그 보좌역처럼 지명도 있는 가문에서 출생 순서에 맞게 전해지는

13)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and Hudson, 1997, pp.98-99.

신분과 직위를 의미하였다. 젊은 추장이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행해지는 이러한 문신 의식은 매우 공을 들이는 행사였으며,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지배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문신들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헌신과 인내력을 영원히 찬미하기 위해 새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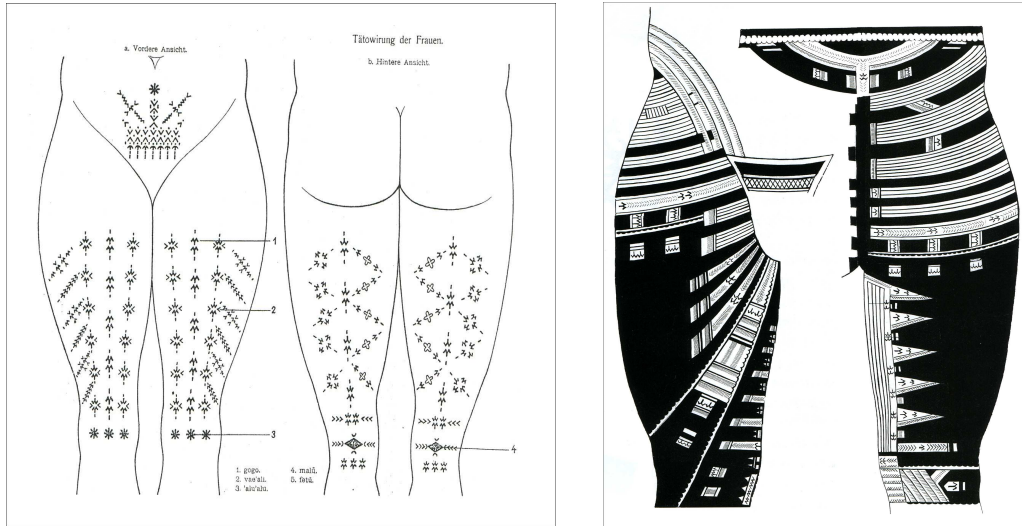


그림2-11 사모아인의 전통 문신 '타타우'
여자들의 허벅지 문신(左)¹⁴⁾과 남자들의 허벅지 문신(右)

사모아 섬에 첫발을 들인 유럽인들은 1787년의 프랑스 원정 대원들이었는데, 원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본 그들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허벅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신을 새겼다. 이들은 거의 벌거벗고 지내지만, 그 모습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교차 문화로서의 특성을 지닌 타타우의 역사와 사모아 섬의 문신 풍습이 지닌 신화적 기원은 뉴질랜드의 이민자 사회에까지 전달되었으며, 이후에는 오클랜드부터 네덜란드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전 세계의 하위문화들로 퍼지게 되었다. 하와이의 원주민들에게도 전통적인 문신 예술이 존재하는데, 이를 '카카우(kakau)' 라 한다. 이는 장식이나 신분을 구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영적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행해졌다. 남자들은 갈대가 꼬인 모습이나 다른 자연 형상의 모습을 본뜬 복잡한 무늬들로 팔과 다리, 몸통과 얼굴을 장식하였고, 여성들은 보통 손이나 손가락, 손목에

14) Karl Groning, 앞의 책, p.64.

15) Gilbert Steve, 앞의 책, p.76.

문신을 새겼으며 가끔은 혀에 새기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상 대다수의 기독교회가 문신 행위를 금지했던 바, 이 지역들 역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문신이라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 쇠퇴를 맞이했다.

(11)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은 수천 년 동안 유지돼 온 전통적인 문신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최근까지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보르네오 섬의 많은 부족들은 다양한 전통 생활양식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문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르네오 섬의 디자인(그림2-12)¹⁶⁾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서구인들이 ‘트라이벌(tribal)’ 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의 기초가 형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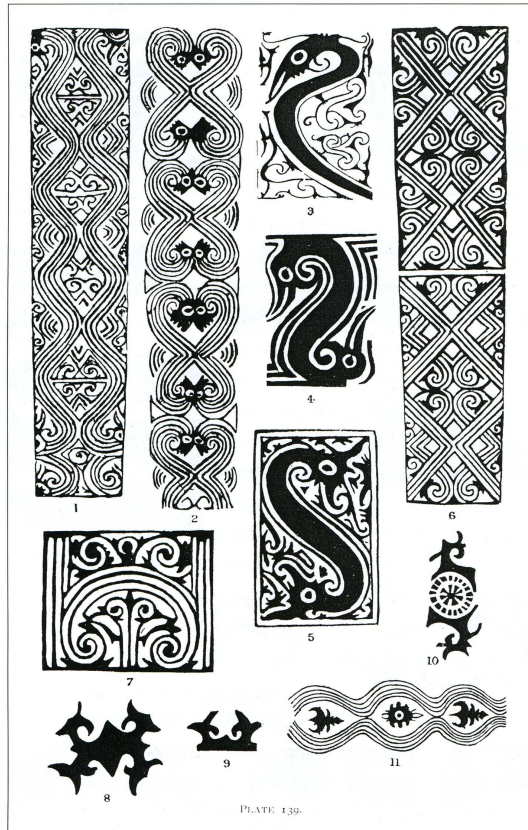


그림2-12 보르네오섬의 다양한 문신 디자인

(12) 아프리카

검은 피부로 인해 색깔이 있는 문신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문신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몸에 상처를 내는 난절법(그림2-13)¹⁷⁾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16)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62, p.262.
 17) Karl Groning, 앞의 책, p.133, p.137.

피부를 약간 드러내 칼 등의 날카로운 도구로 베어낸 후 특수한 모래나 재로 문지름으로써, 커진 상처가 몸 위에서 일정한 무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점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무늬들은 지역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2-13 난절법을 이용해 문신을 한 아프리카인들

(13) 중남미

페루에서는 몸에 문신이 새겨진 11세기 잉카인들의 미라가 발견된 바 있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의 문헌은 멕시코 및 중미 지역의 마야인들이 행한 문신 행위가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519년,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코르테즈(Cortez)와 그의 정복대는 원주민들이 우상이나 조각상의 형태로 악마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그 형상을 지워지지 않게 남기려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리고 말았다. 문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스페인인들은 이를 보고 즉각 악마적인 행위로 인식한 것이다. 코르테즈와 그 정복대의 모험을 기록한 16세기 스페인의 역사가들은 문신 행위가 중미 지역의 원주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14) 북미

초기 예수회 수도사가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문신 행위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치카소(Chickasaw)족의 경우에는 뛰어난 전사들을 그 문신으로 알아

볼 수 있었고, 온타리오의 이로쿼이(Iroquoian)족 사회에서 정교한 문신은 곧 높은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서 아메리카 지역의 이누이트(Inuit)족 여성들은 남편의 지위와 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턱에 문신을 새겼다.

1846년 최초의 상설 문신 가게가 뉴욕에 문을 연 후 남북 전쟁 때 남북 양측의 군인들로부터 문신(그림2-14)¹⁸⁾을 새기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그림2-14 사자(死者)들의 살갓에 보존되어 있는 초기 미국인들의 문신

18)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195.

3. 문신 시술 방법과 유형

현대의 문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컬러 사용 여부와 문양에 전통성 부여 여부에 따라 크게 구분되고, 그 형식에 있어서 패션과 스타일 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시술 방법 또한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로부터 발전되어온 시술 방법과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문신 유형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 문신 시술 방법

(1) 전통적인 문신 시술 방법

(가)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그 이유는 검은 피부에 색소를 사용하여 문신을 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상흔 문신은 살을 베어 흉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 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 문신(그림2-15)¹⁹⁾이다. 그 중 일반적인 방법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인데 예를 들어 종미의 수모족이나 부리부리족은 불에 태운 송진을 상처에 발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일종의 피부종양인 켈로이드를 만든다. 이는 부조(浮彫)가 된 큰 상흔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반투족이나 나일강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누바족의 여성(그림2-16)²⁰⁾은 가슴, 등,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무늬를 새겼는데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벤 다음 숲,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²¹⁾ 이러한 상흔문신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으며, 주로 사춘기 초기에 만들거나 아이의 출산 후 상흔을 덧붙여 만들었다. 이들은 색을 써서 나타내기 보다는 피부에 입체감을 형성시켜 눈에 잘 띄게 하여 그들 나름의 미를 표현했다.

19) Karl Groning, 앞의 책, p.147.

20) 위의 책, p.135.

21) 이효진, 『현대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p.57.



그림2-15 상흔문신을 하고 있는 누바족 여성



그림2-16 누바족 여성의 상흔 문신

(나) 색소를 사용하는 문신 방법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문신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일정한 색소를 피부에 물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 기술은 살빛이 옅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이용되는 색채는 흑색이 제일 많은데, 청색이나 녹색, 드물게는 적색도 쓰이고 시술하는 방법에는 자문신(刺文身)과 봉문신(縫文身)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자문신은 손으로 직접 붓 같은 것을 가지고 문양을 그리던지, 아니면 문양을 새긴 목제 스탬프(그림2-17)²²⁾를 눌러 찍어 대상이 피부에 그려지면 미리 선택한 색소를 적신 바늘로 찌러 시술을 한다.

말케사스섬의 원주민(그림2-18)²³⁾들은 문신을 할 때 'ta'라고 불리 우는 톱니 모양을 한 인간의 뼈로 만든 뾰족한 도구에 염료를 발라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ta'는 길이가 3인치정도이고 형태는 찢어서 구멍을 만들기 위한 빗 같이 작고 뾰족한 살이 여러 개 달린 날카로운 썬기 모양이었다. 좀 더 작은 곡선의 문신을 새길 때는 새의 날개와 다리뼈를 이용하였다.²⁴⁾ 문신에 사용하는 물감은 특별한 견과류의 재를 태양 빛에 말려서 코코넛 기름이나 물과 함께 사용하였다.

22)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62.

23) Karl Groning, 앞의 책, p.92.

24) 빅토리아 에빈, 임숙자 역, 『신체장식』, 경춘사, 1988,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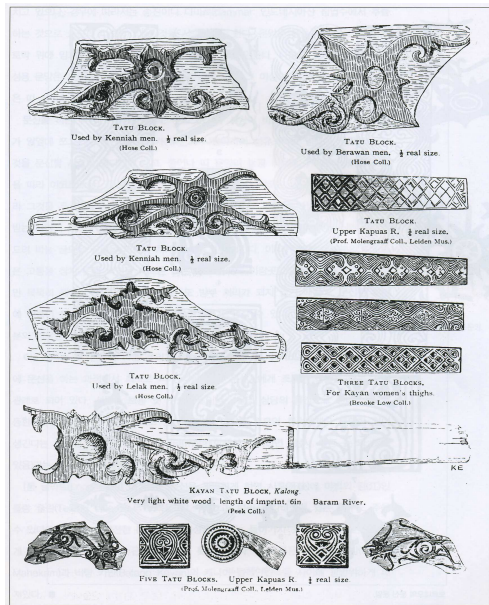


그림2-17 자문신에 사용된 목각 스탬플



그림2-18 말케사스섬 원주민의 문신한 모습을 그린 그림

② 봉문신은 바늘에 물감을 칠한 실을 꺾어 피부에 그려진 문양을 꺾매나가는 방법으로 주로 북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²⁵⁾

이처럼 전통 문신 시술 방법은 색소를 침착시키거나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상에 큰 고통과 함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2) 현대의 문신 시술 방법

19세기 말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작은 전기 모터로 된 조판기계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의 문신사 중의 한 사람인 사무엘 오릴리(Samuel O'Reilly)가 캠장치가 달린 최초의 전기 타투 머신(문신 기계)(그림2-19)²⁶⁾을 발명하면서 문신 시술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였다.

문신 기계를 이용한 문신 시술 방법은 기계 끝에 달린 바늘에 색소를 묻혀 재봉틀처럼 바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피부를 뚫고 피부 속까지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25)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앞의 책, p.591.

26)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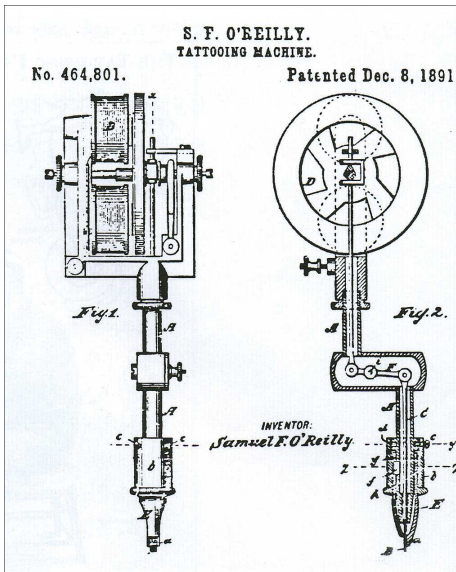


그림2-19 최초의 전기 문신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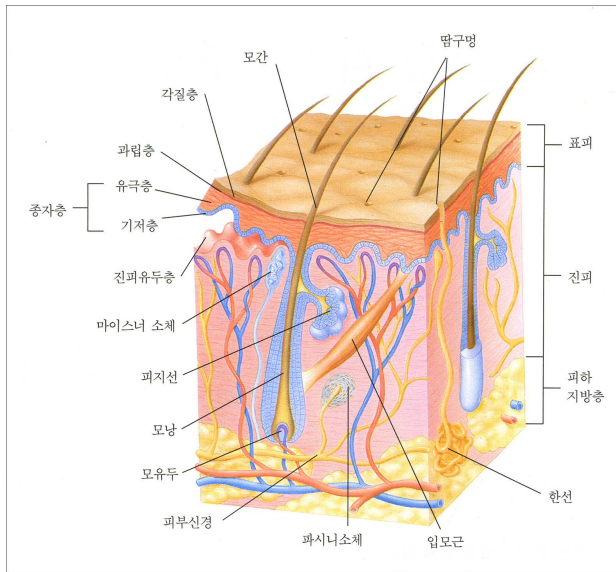


그림2-20 피부의 구조

대부분의 문신사는 직각으로 생긴 전기 진동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 문신 기계는 1분에 50~30,000번 정도 움직이면서 피부(그림2-20)²⁷⁾ 진피층에 보통 0.4~1.6mm 정도의 깊이로 색소를 주입한다. 디자인 윤곽 작업은 보통 바늘대에 부착된 1개의 바늘로 작업하며, 음영 작업과 컬러링 작업은 주로 5~7개의 바늘로 작업한다.

다음은 문신 시술 작업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구들을 알아본다.

(가) 문신 기계(그림2-21)²⁸⁾ - 기계의 스프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처음 구입한 기계나 스프링을 바꾼 기계는 공회전을 충분히 시킨 후 사용하는데 보통 삼십 분 정도의 공회전을 대 여섯 차례 정도 반복한 후 비로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기계의 몸체는 철이나 황동, 스텐레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의 경우 작업 시 손과 마찰되어지는 부분을 제외한 틈새 등에 녹이 슬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WD 등 기계 세정제를 칫솔에 묻혀서 닦아내고 정기적으로 몸체에 도포하는 것으로써 부식 방지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27) 김선미 외, 『피부과학』, 현문사, 2006, p.12.

28) 이진명, 『영구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실제』, 여문각, 2005,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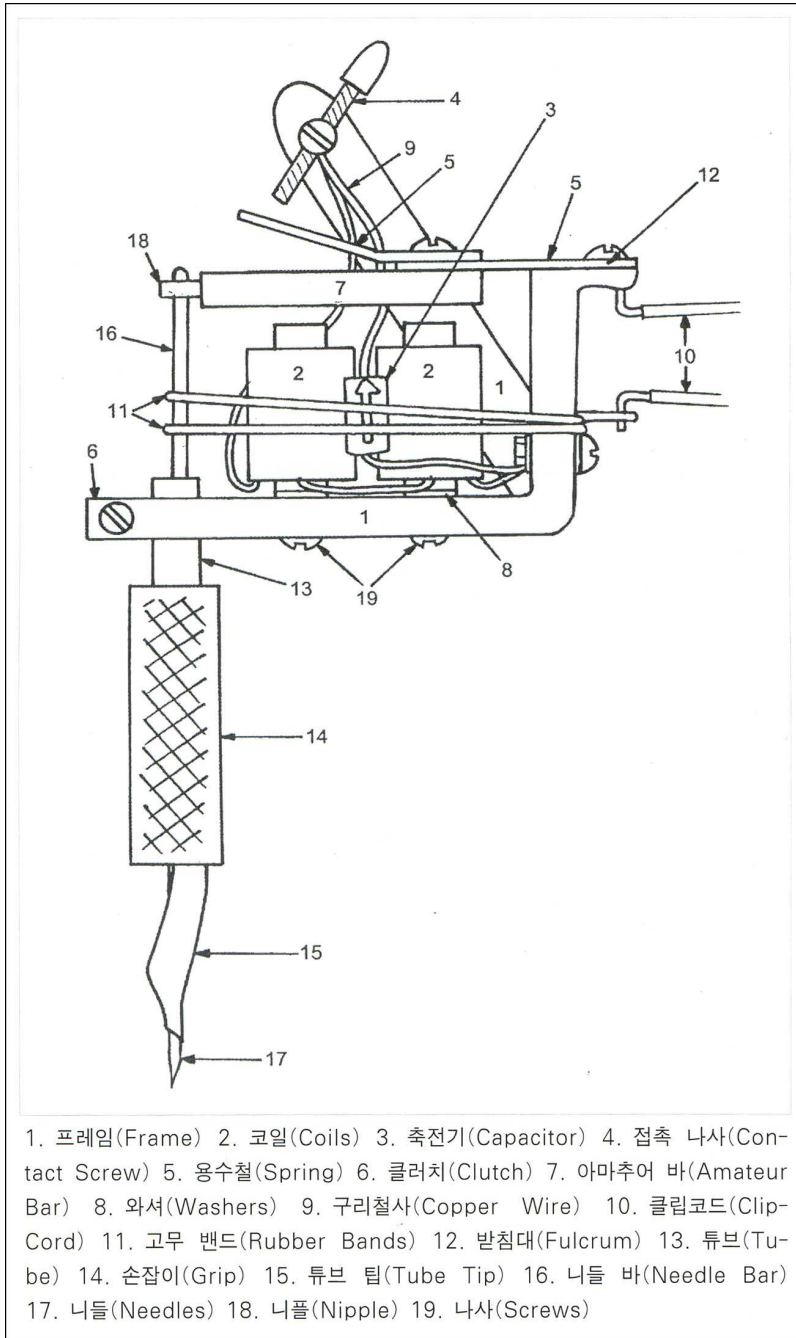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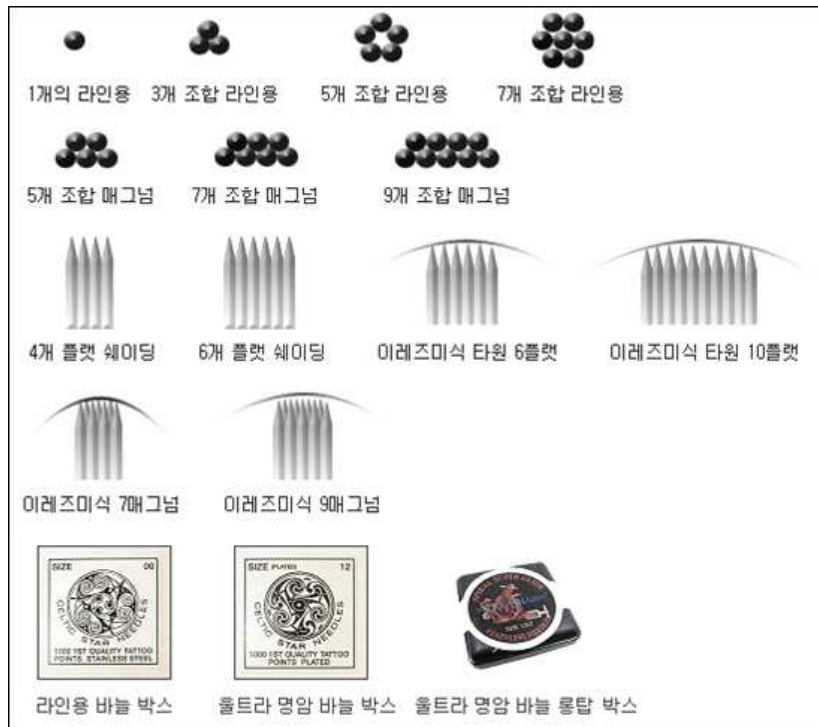


그림2-21 문신 기계의 구조 및 명칭

(나) 바늘(그림2-22)²⁹⁾- 바늘은 실제 피부에 접촉되는 끝 부분의 모양에 따라 크게 나누어진다.

① 라운드 바늘: 둥근 형태의 바늘을 칭한다. 한 개에서 십 수 개의 바늘로 구성된 라운드 형태는 주로 라인 작업에 적합하며, 비교적 적은 부위의 컬러링 작업에도 쓰여 진다. 끝 부분이 결합된 바늘들이 적당한 밀도와 균일한 길이로 마무리 된 것이 작업 성향을 불문하고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2-22 여러 가지 타입의 바늘 종류

② 플랫: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져 있는 바늘을 칭한다.

③ 매그넘: 플랫의 형태에서 지그재그로 변형되는 바늘을 칭한다.

명암작업에 쓰여 지는 플랫과 매그넘 역시도 라운드 바늘과 같이 동일한 길이로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직선으로 마무리 된 것 일색이었지만, 근래의

29) <http://www.onetattoo.net/>

외국에서는 타원을 이룬 것들이 주문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는 라운드와 플랫이며 유럽에서는 삼단이나 사단으로 배열된 매그넬도 쓰이기 시작했다.

(다) 니들 바 - 바늘이 기계에 부착되어 쓰여 질 수 있도록 용접 되어진 것이다.

(라) 잉크(그림2-23)³⁰⁾ - 문신 전용으로 적합한 안료는 무독성이면서 채도가 높고 발색이 정확해야 한다. 손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색을 혼합하여 색 이론에 부합하는 정확한 색상이 나오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문신용으로 시판되는 잉크라 할지라도 혼합할 경우 많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23 문신용 잉크 컬러

30) <http://www.onetattoo.net/>

문신용 잉크에도 흔히 쓰여 지는 액체로 된 것 이외에 분말로 된 안료도 많이 선호되고 있다. 문신 전용 잉크를 안정시키면 밑 부분은 원색의 안료로 중간 부분은 맑은 액체로 완전히 구분된다. 약간의 점성을 띠는 투명 액체는 잉크의 건조를 막으며 동시에 피부에 안료가 정착되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병행하는 문신 전용 잉크 고유의 유익한 첨가제이므로 덜어내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안료와 첨가제를 혼합해야 한다.

(마) 파워 서플라이(그림2-24) - 일반적인 교류 전원을 문신 기계에 쓰여 지는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고저를 적절하게 조절,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기계이다.

(바) 소독기구 - 피부를 뚫어 작업이 행해지는 문신은 피부 감염이나 여러 질병의 전염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소독을 위한 장비들도 갖추어야 한다.

- ① 멸균기(그림2-25) - 열과 압력 그리고 스팀을 이용하여 미생물들을 죽이는 소독기로서 보통 10파운드의 압력 하에 섭씨 121도에서 30분정도 소독을 한다.
- ② 초음파 세척기(그림2-26) - 고속 진동을 이용해 기구나 장비들을 세척하는 기계로 문신에 사용된 기계들에 묻어있는 피나 잉크, 기타 이물질들을 씻어낸다.



그림2-24 파워 서플라이



그림2-25 멸균기



그림2-26 초음파 세척기

이상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며, 문신 시술 시 소요되는 기간은 그 디자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경우 7-15일을 소요하고, 신체 전체에 행할 경우 그 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나. 문신 시술 과정

(1) 피부 소독

피부 소독은 문신을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술할 피부를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서 병원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2) 디자인

디자인은 문신 시술 과정 중 예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시술받는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고, 디자인의 추세나 유행에 뒤쳐지지 않게 하려면 시술받는 사람들이 맘에 드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도록 패턴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잡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유행하는 문신 디자인을 모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진정한 예술가적 문신사가 되려면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문신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요소³¹⁾이다.

(가) 디자인 형태

디자인 형태는 시술하고자 하는 신체 부위의 윤곽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깨나 유방 부위는 둥그런 디자인을 그리고 팔이나 다리 등은 기다란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디자인 방향

디자인의 얼굴 방향은 전면을 향하도록 설정한다. 예를 들어 팔에 호랑이 문양을 문신할 때 호랑이의 얼굴을 시술받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방향인 전면을 향하도록 한다.

(다) 디자인 선

디자인의 선 두께는 대개 디자인의 크기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좋다. 즉 큰 디자인의 윤곽 라인은 작은 디자인의 윤곽 라인 보다 굵게 시술한다. 큰 디자인에 가는 윤곽 라인으로 또는 작은 디자인에 굵은 윤곽 라인으로 시술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큰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중의 윤곽 라인을 만들고 라인 사이에 컬러를 넣을 수도 있다.

31) 이진명, 앞의 책, pp.64-65.

(라) 문신 위치 선정

문신 시술 부위는 시술 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문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반면, 어떤 사람은 눈에 잘 안 띄는 은밀한 곳(견갑골, 골반, 엉덩이 또는 발목 등)에 시술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상의하여 위치를 선정 한다.

(마) 직접 디자인하기

디자인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문신을 시술할 부위의 신체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술받는 사람이 디자인에서 어떤 요소들을 원하는지 알아 본 다음 종이 위에 스케치한다. 구상한 디자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지울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스케치를 시작하여 아주 가는 선으로 디자인을 설계해 나간다. 일단 가는 선으로 스케치가 완성되면 다시 굵은 선으로 스케치를 완성한다.

문신사가 직접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상력만으로 디자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해부학 책, 그림 책, 잡지 책, 만화 등 그림 그리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구해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3) 피부에 밑그림 그리기

펜을 이용해 직접 피부에 윤곽을 그릴 수도 있고, 깨끗하고 세련된 문신 작품을 위해서 스탠실을 이용하는 방법(그림2-27)도 있다.

(4)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절차들

문신 시술은 정밀을 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항상 침착한 마음으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시술시 위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안전하게 시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은 문신사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³²⁾

(가) 시술 전, 시술 도중 그리고 시술 후 1회용 장갑에 구멍이 나 있는지 또는 찢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한다.

(나) 시술 도중 얼굴이나 기타 다른 곳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

32) 이진명, 앞의 책, p.52.

- (다) 장갑을 낀 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 (라) 미리 색소를 따라 놓고, 색소가 추가로 필요하면 깨끗한 티슈로 색소 병을 따고 오염된 기구들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 (마) 시술 받는 사람의 피부에 손으로 직접 디자인을 할 경우 사용된 펜은 버리거나 시술 받는 사람에게 준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펜은 소독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에 달라붙지 않는 밴드를 대고 그 위에 거즈를 붙이고 알려지를 일으키지 않는 테이프로 고정해 준다.
- (사) 시술이 끝난 후 장갑은 버리고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5) 문신 시술

시술 받는 사람이 자세를 잡고 밑그림 작업이 완성 된 후에는 문신 시술로 들어간다. 문신 시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윤곽 작업(Outlining)과 음영 작업(Shading)이 있다.

(가) 디자인 윤곽 작업(Outlining)(그림2-28)³³⁾

문신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디자인의 경계를 제공하는 윤곽 작업은 문신 시술의 첫 단계로 한 개 또는 다섯 개의 바늘을 사용한다. 바늘의 배열 형태는 원형, 장방형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다. 윤곽 작업을 할 때 바늘의 깊이는 약 1.5mm정도가 적당하다. 문신 시술 시 통증은 주로 윤곽 작업 때에 느껴지며, 피부 두께는 같은 부위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늘 깊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뼈 바로 위의 피부에 시술할 경우는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바늘 깊이를 조절해야 한다.

윤곽 작업을 할 때 피부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스트레치 시켜주는 게 좋다. 이것은 바늘 깊이를 너무 깊거나, 열지 않게 일정한 깊이를 유지시켜 주고 선을 반듯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심한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반면에 너무 얕으면 문신 시술 부위의 상처가 아문 다음 선이 분명하게 남지 않는다. 바늘 각도는 시술 부위에 따라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피부에 바늘을 침투시킬 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어 넣고 손에 단단히 힘을 주고

33) 이진명, 앞의 책, p.63.

천천히 부드럽게 윤곽 작업을 해야 한다. 시작 부위와 끝나는 부위를 설정하고 윤곽 디자인 라인을 따라 시술하며, 문신 기계에 의해 잉크가 피부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움직이면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정확히 시술해야 한다.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선이 약하게 생기며 너무 늦으면 잉크가 선을 벗어나 또렷한 선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윤곽 라인의 두께는 디자인의 크기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작고 섬세한 디자인의 윤곽을 두꺼운 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큰 디자인의 경우 윤곽 라인은 보다 굵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윤곽 작업을 할 때 문신 기계 끝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문신 기계 끝이 피부에 닿으면 잉크 방울이 묻어 윤곽이 잘 보이지 않아서 깨끗하고 정확한 윤곽 작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윤곽 작업의 방향은 주로 밑에서 위로 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작업해야 할 윤곽선들을 놓칠 확률을 줄이면서 손바닥으로 인해 윤곽이 지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방향으로 작업하면 이어서 진행되는 음영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하나의 윤곽 작업을 마치면 피부에 묻어 있는 피나 삼출물을 물티슈나 촉촉한 거즈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내면서 다른 윤곽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기계가 진동하면서 바늘이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것을 손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문신사가 이러한 손 감각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손을 가능하면 피부에서 떼지 않고 속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긴 선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은 선을 고르게 할 수가 있다. 또한 가급적이면 선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점차 익숙해지면 경우에 따라 적절히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다.

윤곽 작업은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둘러서 윤곽 작업을 했는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윤곽 작업을 했는지는 문신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시술받는 사람도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윤곽 작업은 문신사의 기술을 가늠하는 첫 관문이다.

(나) 음영 작업(Shading)(그림2-29)³⁴⁾

윤곽 작업이 완성되면 음영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바늘은 음영 작업용

34) 이진명, 앞의 책, p.64.

바늘로 교체하여 색소를 묻혀 음영 작업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보다 상세한 부분은 적은 개수의 바늘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은 수의 바늘을 사용한다. 바늘의 깊이는 0.5mm정도가 적당하며 이 때는 통증이 없거나 아주 적다.

윤곽 내에 음영 작업은 시술받는 사람이 선택한 디자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신사의 기술이나 경험에 따라서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음영 작업은 디자인의 형태를 살리면서 삼차원적 느낌을 위해 여러 강도로 피부에 검정이나 컬러 색소를 넣는 것을 말한다. 음영 작업의 테크닉은 그림이나 페인팅 작업과 비슷하며 주입하는 색소의 강도 또는 두께를 조절하여 문신 작품의 깊이 또는 원근 화법을 나타낼 수 있다.

음영 작업은 검정 부위와 진한 부위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손동작의 속도와 문신 기계의 스피드를 조절하여 표현한다. 기계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손동작 속도만 조절하여 음영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손을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보다 강하게 그리고 손을 보다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밝은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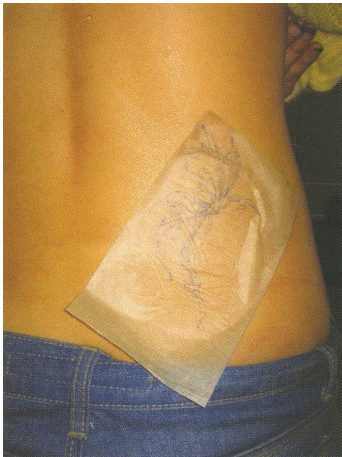


그림2-27 밑그림 스탠실
작업



그림 2-28 디자인 윤곽 작업
(Outl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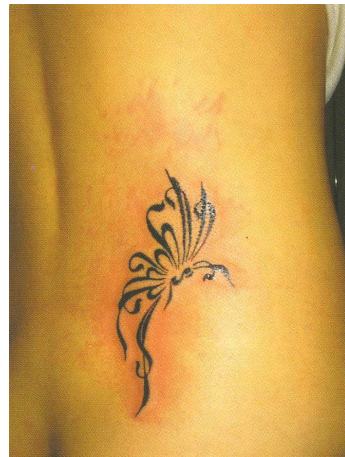


그림2-29 음영 작업 (Shading)

음영 작업의 또 다른 방법은 색소를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여 보다 밝은 색감을 낼 수도 있다. 보통 색소의 농도는 20~80%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특히 블랙 앤드 그레이 작업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잉크를 물로 희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다. 문신의 유형별 분류

문신의 유형은 전 세계에 걸친 지역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다. 문신이 행하여진 형태, 색상, 기교 등 문신의 차이점은 여러 문신사나 문신애호가에 의해 많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늘날 서로의 개성이 혼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문신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블랙 앤 그레이 (Black & Grey)

블랙 앤 그레이(그림2-30)³⁵⁾는 검정색만으로 명암의 차이를 이용한 컬러링 스타일로 주로 정교한 초상이나 극사실적 디자인 등의 묘사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회화적인 느낌으로 소재에는 제한이 없으며 섬세하고 정교하며, 음영의 처리를 극대화해서 문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흑백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음영의 처리가 완벽하며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표현되어지는 소재에는 큰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이 동물의 사실적 표현이나 초상화와 같은 인물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주로 이용된다. 타 스타일보다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



그림2-30 블랙 앤 그레이 (Black & Grey)

35) <http://www.plustattoo.co.kr/html/gallery>

(2) 올드 스쿨 (Old School)

올드 스쿨(그림2-31)³⁶⁾은 극히 개인적이고 본인을 대표할만한 그림이나 문양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트래디셔널이라고도 불리는 서구 18세기의 문신 스타일이다. 선명한 외곽선과 큼직한 컬러링이 돋보이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의 기본적인 원색을 사용하는 것과 검은 색 명암에 의해 간결하게 색을 처리하는 것은 올드 스쿨만의 특징이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군인이나 선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십자가, 꽃, 달, 하트, 곤충, 동물 등의 단순화된 형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2-31 올드 스쿨 (Old School)

(3) 뉴 스쿨 (New School)

뉴 스쿨(그림2-32)³⁷⁾은 크로스오버의 흐름에 속하는 대표적인 스타일로 보통 선명한 외곽선에 파랑색/주황색, 보라색/노랑색 등의 보색에 가까운 대비가 극명한 색상을 큼직하게 사용하며 형태를 다소 과장시키거나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는 등 개성이 두드러지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스타일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각광 받고 있는 디자인으로 코믹(Comic)한 표정의 만화 주인공이나, 희화(戲畵)시킨 동물 등이 소재가 되며 요즘은 두꺼운 외곽선이 유행이다. 한편 광의의 의미로는 현대에 나타나는 모든 스타일의 문신디자인을 뉴 스쿨로 분류하기도 한다.

36) <http://www.onetattoo.net/>

37) Dale Rio & Eva Bianchini, 『TATTOO』, COURAGE Books, 2004, pp.11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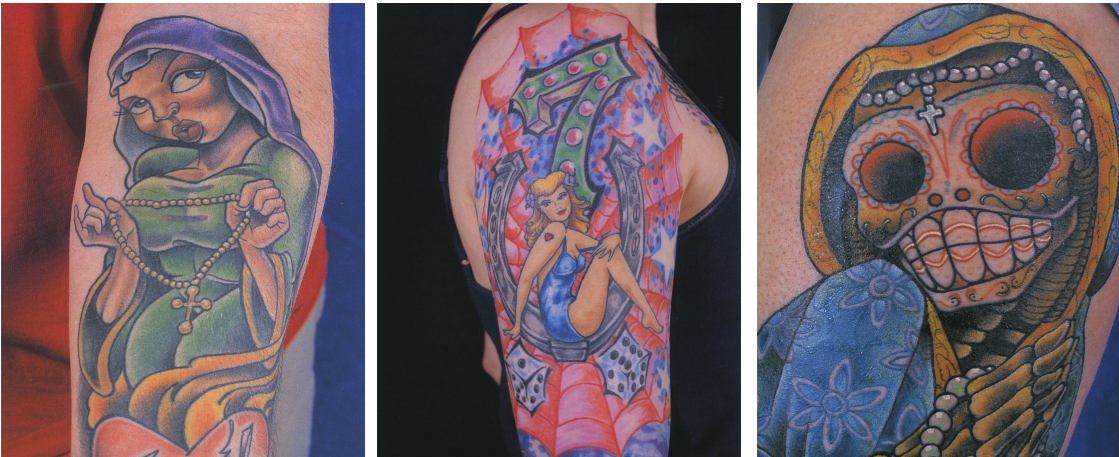


그림2-32 뉴 스쿨 (New School)

(4) 트라이벌 (Tribal)

트라이벌은 원시 부족적·주술적 문양의 발전적 형태로서 대상을 단순, 장식화한 스타일이다. 트라이벌은 원래 원시부족의 의미를 뜻하나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는 원시부족의 고유 디자인 형태를 지닌 문신 양식의 전문용어가 되었다. 폴리네시아(그림2-35)³⁸⁾,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타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검정색 기하학적 넝쿨 모양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는 스코틀랜드 켈트족의 전통 문양인 매듭을 이용한 복잡한 장식 스타일인 켈틱, 아스테그 마오리— 토템 계열 등의 종류가 있다. 트라이벌 타투의 시작은 1982년 타투잡지인 「타투타임(Tattoo time) 창간호에 ‘뉴 트라이벌리즘’이란 주제가 특집(그림2-33)으로 게재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³⁹⁾, 이 때 타투 매니아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폴리네시아와 일본의 퓨전스타일로 만든 에드 하디(Don Ed Hardy)의 작품이 타투타임 창간호의 표지(그림2-34)로 등장하였고, 이후 1980년대는 트라이벌리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트라이벌이 타투양식 내에서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인들이 원시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국적인 취향과 육체에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원시적인 욕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트라이벌의 단순한 문양은 여름철 젊은이들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널리 애용되기도 한다(그림2-36)⁴⁰⁾.

38) Gilbert Steve, 앞의 책, p.270.

39)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p.330-332.

40) Dale Rio & Eva Bianchini, 앞의 책,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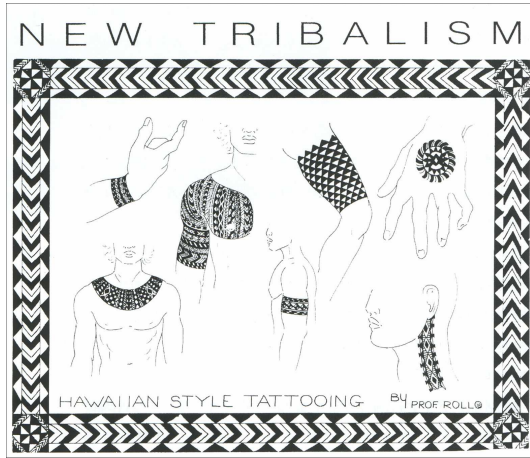


그림2-33 「타투타임(Tattoo time)」 창간호의
'뉴 트라이벌리즘' 특집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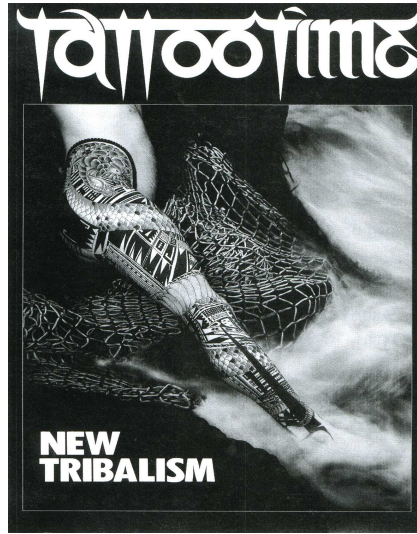


그림2-34 「타투타임(Tattoo time)」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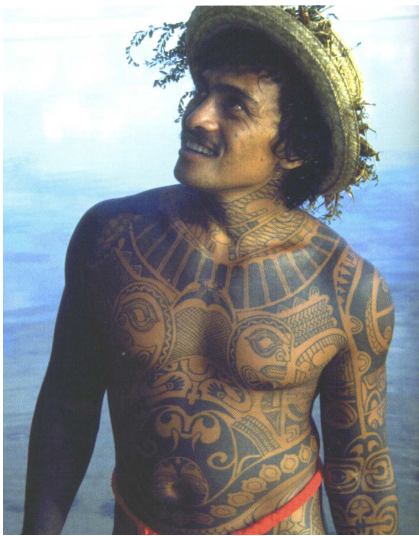


그림2-35 폴리네시아인의 문신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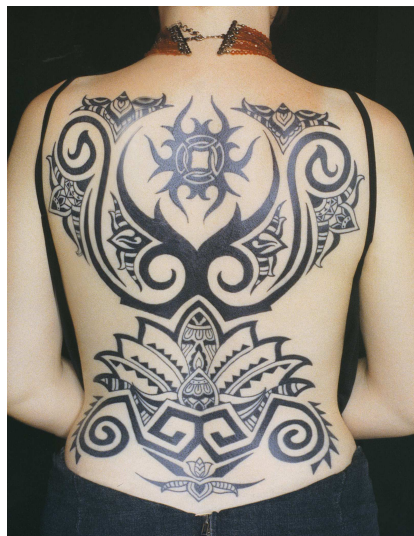


그림2-36 현대의 트라이벌 문양

(5) 이레즈미 (Irezumi)

이레즈미(그림2-37)는 ‘신체에 물감을 들여 넣는다.’ 라는 뜻으로 일본의 전통 문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본 스타일의 문신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레즈미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넓은 부위에 하나의 문양으로 문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에 중점을 둔 스타일로 몸을 캔버스처럼 활용하여 물고기, 용, 꽃 등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디자인을 등이나 배를 중심으로 온 몸에 그려 넣는 형태이다. 또한 이레즈미는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양식이다.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양식의 이레즈미 문신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문신 양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2-37 이레즈미 (Irezumi)⁴¹⁾

(6) 바이오키네틱 (Biomechanical)

바이오키네틱(그림2-38)⁴²⁾은 주로 SF적인 요소가 많은 디자인으로서 초현실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에어리언’ 등에서의 기계 인간 모습이 바이오키네틱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기계와 생물을 조합하고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첨가하는 등 그로테스크하고 엽기적인 작품들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41) <http://www.koreatattoo.co.kr>

42) <http://www.tattoorepublic.co.kr>

생명체의 조작은 세기말적인 암울한 분위기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낸다.



그림2-38 바이오키네틱 (Biomechanical)

이상에서 현재 표현되고 있는 문신을 블랙 앤 그레이, 뉴 스쿨, 올드 스쿨, 이레즈미, 트라이벌, 바이오키네틱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문신 디자인은 특히 일본의 전통 이레즈미와 원시부족문화의 전통 디자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서구문화의 맥락에서 재창조하였다. 또한 어느 한 가지 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타일이 공존하는 퓨전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문화적 전파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문신 형태와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요즘 새롭게 나타난 커버업 문신은 기존의 문신 문양(그림2-39) 위에 새로운 문신으로 재작업 하는 것(그림2-40)으로서 문신 양식의 한 분야를 차지할 만큼 널리 성행하고 있다.⁴³⁾

문신은 현재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당당한 예술(Fine Art)의 한 분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 움직임과 노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신사들 간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인 목적을 떠나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43) <http://www.oktattoo.co.kr/gallery06.aspx>



그림2-39 기존의 문신 문양 그림2-40 새로운 문신으로 재작업 한 문신

제2절 문신의 영역

문신은 일반적으로 영구(永久)문신을 지칭한다. 그러나 문신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적극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현대 사회에 와서는 패션의 한 코드로 작용한다. 오늘날에 있어 문신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바디페인팅, 헤너, 반영구 화장(semi tattoo)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음에서는 문신의 영역에 속하지만 일회성인 바디페인팅을 제외하고 헤너와 반영구 화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헤너(Henna)

가. 헤너의 개념

인도나 이집트 등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라우소니아 이네르미스(Lawsonia inermis)라는 이름을 가진 관목의 잎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그림2-41)⁴⁴⁾이 헤너이고 이 가루를 반죽하여 피부에 바름으로써 염색을 하는 형식을 헤너라고 부른다.

헤너는 종종 헤너 문신이라 불리 우며 문신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신은 바늘을 이용해 염료를 피부 아래층까지 침투시켜 만드는 장식인데 반하여, 헤너는 염색과도 같이 피부의 겉을 물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피부에 상처나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문신의 두려움을 가진 일반인들은 표현 욕구를 헤너로 대신하고 있다.

헤너는 식물 성분으로부터 추출되어 pH5.5보다 더 산성을 띄므로 피부를 염색시킬



그림2-41 헤너 가루

44) Karl Groning, 앞의 책, p.121.

수 있는데 피부의 표면이 벗겨질 때까지 유지되어 새로 생긴 피부에서는 헤너자국이 남지 않게 된다. 보통 피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1~12주 내에 벗겨지고 새 피부로 대체되는데 헤너는 두꺼운 발바닥에서는 8주 정도 유지되고 피부의 매우 얇은 부분에서는 3~4일 만에 없어지기도 한다.

헤너는 인도어로 멘디(Mehndi)라고 한다. 헤너 또는 멘디를 사용하는 양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인도의 헤너 디자인은 손, 발, 정강이 전체를 뒤덮고 레이스(Lace), 꽃, 페이스리(Pasley)무늬를 소재로 하여 날카롭고 가는 선으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 아랍(Arab)의 헤너 디자인은 보통 손과 발에 하는 큰 꽃무늬 정도이다. 이와 같은 인도나 아랍 문화권에서 헤너의 다양한 디자인은 건강한 육체, 풍요로움, 지혜로움, 정신적 교화, 방어(防禦) 등과 같이 각 문화의 구성원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 헤너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 역시 다양하다. 모로코(Moroco)에서는 결혼 전에 헤너로 장식하는 풍습이 있고 또 증기탕에서 여자들의 몸을 서늘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회교도인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그들의 손을 헤너를 희석한 물에 담거나 헤너를 바르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헤너를 하는 게 관례적인 전통이다.⁴⁵⁾

나. 헤너의 역사

헤너의 정확한 기원을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약 7000년 전부터 카터 후육(Cater Huyuk)에서 신석기인들이 풍요의 여신과 관련된 의식으로 그들의 손을 장식하기 위해 헤너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들은 헤너가 적어도 5000년 동안 화장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헤너가 특별히 신부의 장식 등 여성에게 사용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2100년 북서 시리아에서 판에 새겨진 발(Baal)과 아나스(Anath: 풍요와 전쟁의 여신)의 전설에 나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나스는 전쟁 전에 헤너로 그녀의 손을 장식했고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헤너로 그녀의 손을 장식했다고 한다. 헤너가 전설의 일부로 언급됨에 따라 헤너는 가리토(Vgarito)사람들에게 지중해의 동해안을 따라 결혼 풍습의 일부 또는 여성과 관련된 행사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45) 홍지현, 『現代 메이크업에 나타난 文身 類型 研究』,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6-22.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너가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기 전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염색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또 미라가 된 유대의 율법학자(BC 1400)가 헤너를 사용해 염색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그림에서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시바(Ciba)여왕의 여정에서 헤너로 장식한 여왕을 묘사한 기록도 있다.

다. 헤너의 기능

헤너는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되면서부터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 북부 아프리카에는 헤너와 관련된 치료 의식이 있고 이슬람(Islam)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여 왔다. 생일, 약혼, 결혼, 임신, 출산 등 특별한 기념일에는 모두 헤너로 장식하여 축하하는 전통도 있다.

헤너는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힌두(Hindu)교도에게도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신부는 헤너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고 아내로서 새로운 지위에 대한 의무를 교육받게 되며 친척들은 그녀가 많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헤너 의식에 참여하였다. 신랑 또한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 많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지니기를 기원 받으며 헤너 의식을 가졌다. 헤너가 사용되는 나라마다 헤너에 대한 각기 다른 전통이 있지만 헤너에 관련된 각국의 전통은 모두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부를 기원하며 삶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인도에서는 축제 때 행사의 일부에 헤너가 행해졌다. 여성들은 자신과 친구, 친척에게 헤너를 행했다. 축제의 일부로 헤너를 이용해 장식하는 것은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특별한 의식이 되었다.

헤너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신성한 장식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장식이기도 했다. 또한 여성이 우정이나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헤너는 아름답고 축복 받은 것이며 나쁜 마음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족 세계의 의례였던 것이다.

라. 헤너의 종류

헤너는 표현되어지는 색상에 따라 자연의 갈색 그대로의 색상을 내는 내추럴 헤너(Natural Henna)와 검은색을 내는 블랙 헤너(Black Henna)(그림2-42)⁴⁶⁾, 붉은 색을 내는 붉은 헤너(그림2-43)⁴⁷⁾로 나눌 수 있다. 아프리카와 중세 페르시아(Persian)에서는 검은 헤너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에서는 붉은 헤너가 더욱 길조로 여겨졌다. 검은색 헤너는 신선한 헤너가루를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며 하루 동안 보존하면 얻을 수 있다.

또한 헤너는 피부 시술용과 머리카락 염색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위한 헤너는 피부용 헤너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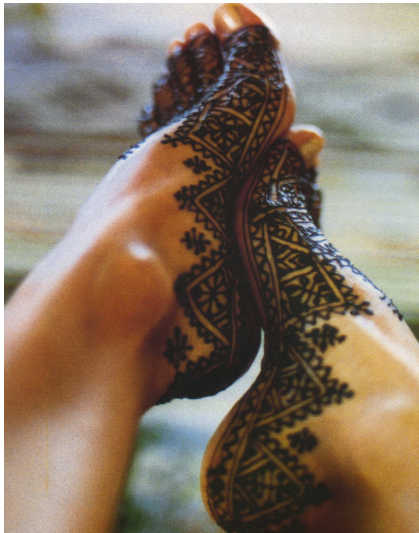


그림2-42 블랙 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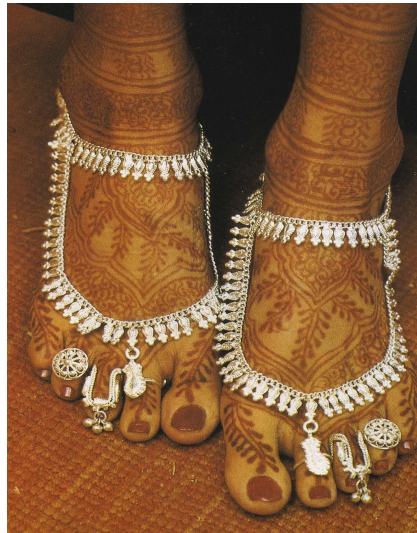


그림2-43 붉은 헤너

46) Karl Groning, 앞의 책, p.123.

47) 위의 책, p.179.

2. 반영구 화장

가. 반영구 화장의 개념

반영구 화장은 세계적으로 퍼머넨트 메이크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퍼머넨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은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아름답게 하는 화장(化粧)’을 뜻하는 메이크업(makeup)에 ‘고정된, (반)영구적인, 오래 가는, 변색(퇴색)하지 않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퍼머넨트(permanent)가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이다.⁴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퍼머넨트 메이크업이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반영구 화장(Semipermanent makeup)’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퍼머넨트 메이크업의 장점이 문신의 그것과 흡사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적 특징이나 지역성과 풍토성에 따라 변형되어 받아들여진 외래어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의 생성은 퍼머넨트 메이크업이 주는 영구적인 의미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뉘앙스를 주기 위해 ‘세미(semi)’라는 접두어를 붙여 조금 덜 혹은 반이라는 의미를 넣음으로써 영구적인 미용문신과는 다르고 감염이나 여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적거나 없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강조하고자 한 결과로 보인다.

반영구 화장은 처음에는 문신의 영역으로부터 미용이나 성형 등 미용화장과 의료의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후 반영구 화장은 점차 그 미용적인 부분의 중요성에 의해 화장술로서 독립되어가는 실정이다. 공개적이고 신뢰받는 의료적인 부분에서 문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문신의 시술이나 그 전수 방법과 전통적인 상징성의 한계를 의료 쪽에서 다른 관점과 필요로 그 의미를 변형시킨 결과이다. 의료적인 연구와 문신예술가들의 예술적인 감각들과 예술세계의 추구가 자연스러운 화장술로 귀결된 것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새로운 개혁을 창조했다.

48) 이지영, 『반영구 화장과 문신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1-12.

나. 반영구 화장의 역사

사회가 형성된 이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은 자신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추구해 왔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 늙음과 젊음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가 밝고 화려한 의상, 화장과 정성들인 머리 모양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특히 반영구 화장은 메이크업의 기술을 어느 기간 동안 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측면에서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이 이와 같은 유효성, 실용성을 갖게 됨에 따라 일상 메이크업의 보완과 향상의 의미를 갖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영구 화장의 주요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영구 화장은 1815년에 최초로 문신 기계를 발명한 사무엘 오릴리(Samuel O'Reilly)의 제자인 찰스 와그너(Charles Wagner)가 여성들의 입술, 뺨, 눈썹에 성형 문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또 화학적인 문신 제거법을 개발해서 이전 시대까지의 강력한 문신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바꾸거나, 지우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문신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문신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의 확장을 가져왔다. 19세기 말 가슴 성형이 시작된 미국 사회에서 성형 수술로 만든 가슴에 색을 넣는 채색소 침착(沈着)을 시술하기도 하였다. 조지버첵(George burchett)은 여성들의 뺨에 얇은 색조를 넣고, 입술을 붉게 만들고 눈썹을 검게 그려주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다. 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상이군인들의 상처 부위에 정상 피부톤을 문신해주기도 하였다.⁴⁹⁾

1960년대에 들면서 크로웰(Crowell)은 눈썹 문신에 피하주사기(hypodermic needle)를 이용했다. 1984년에 지오라(Giora)는 미용의 목적으로 아이라인과 눈썹을 시술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찰스 웨어링(Charles Zwerling)에 의해 최초로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Micro pigmentation) 이라는 책이 발간⁵⁰⁾되었다.

반영구 화장은 문신의 한 형태이지만 화장이라는 미용술에 응용되어짐으로써 실용성을 지닌 또 다른 미용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 현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의 기본적 욕구인 미적 추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역사적 변화와 과학문명 발달에 적응하여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49) 다니엘 맥닐, 안정희 역, 『얼굴, 사이언스북스』, 서울, p.475.

50) <http://www.micropigmentation.org>

다. 반영구 화장의 방법

반영구 화장은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시술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되기도 하고, 펜 머신(pen machine) 또는 로터리 머신(rotary machine)등의 기계나 다른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술하기도 한다.⁵¹⁾

반영구 화장을 위한 기법은 테크닉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여 시술 방법, 재료나 도구, 기계의 사용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펜 기법

특수 공법으로 제작된 바늘로 긁어주는 엠보 기법으로 시술한다. 이 기법은 일 개월 이상에서 몇 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더 섬세한 디자인을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함 부분에는 시술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눈썹 부위에 사용한다.

(2) 펜 머신 기법

마이크로 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천연 미네랄 입자의 색소를 사용하여 일반 메이크업과 같은 기법으로 시술한다. 이 방법으로 시술된 반영구 화장은 2~3일에서 1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전자 펜에 의한 이 기법의 발전은 반영구 화장의 발전에도 혁신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얼굴을 연출하는 반영구 화장의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자펜은 조작하기가 쉽고 떨림이 가볍고 조용한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그 속도감과 조작 용이점 때문에 시술시간과 고통을 줄이고, 디자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었다.

(3) 로터리 머신 기법

인증된 바늘만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구에 완충 작용이 되어 있어 표피와 과립층 사이에만 색소가 가볍게 침착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미용 문신 시술과는 차이가 있으며, 기기 또한 의료 기기로 판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의료적인 개념의 시술이라고 볼 수 없다. 로터리 머신은 디지털식과 아날로그식 기계 두 가지가 있다.

51) 이지영, 앞의 책, 2005, pp.43-46.



그림2-41 각종 로터리식 머신

디지털식 기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정밀한 디지털 제어로 핸드피스가 최상의 상태로 시술될 수 있도록 일정한 파워를 공급 하는 컨트롤 유닛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핸들부분을 돌려 깊이(depth)를 조절하여 재건 시술과 미용적 시술 모두에 사용 할 수 있게 한 핸드피스 부분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식은 고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아날로그식 기계는 공급받는 전류의 상태에 따라 진동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전류의 문제가 없는 곳에서나 전문적인 샵에서 이용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이 기계는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자유로이 힘 조절이 가능해서 무리가 없으나 초보에게는 많은 숙련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의 기계는 모두 바늘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그림2-42)⁵²⁾이다. 위의 모든 방법은 기울여서 찌르는 기법(slant pricking method)을 사용한다. 이 기법의 특징은 색소를 빠르게 침착시키고, 바늘을 원하는 깊이만큼 삽입하여 고통을 줄이는 등 시술 받는 사람의 불편함을 줄인다는 데에 있다.

반영구 화장에 사용 되는 잉크와 그 속에 첨가되는 물질들은 화장품과 색소로 분류되어 미식약청(FDA)이나 호주(APAA) 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검증기관에 등록되어 규제되고 있다.

52) 이진명, 앞의 책, p.21.



그림2-42 로터리 머신의 구조 및 명칭

사용되는 색소는 무자극, 무독성이어야 하고, 안정적이며, 조직 내에서 불활성화 상태여야 한다. 또 멸균 상태와 유효 기간이 검증되어야 하고, 색소조성성분을 밝히고 철저히 살균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부 표피층까지 색소를 바늘을 통해 주입시키는 시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는 사용했던 모든 도구와 시술을 하고 난 장소를 살균 처리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류머티즘,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화학적 알레르기(Allergie)환자이거나, 생리 중일 경우에는 반영구 화장의 시술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혈우병, 피부암환자나, 임산부, 간질병 바이러스 감염자는 절대로 시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 상담에서 알아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문신의 사회적 표현 및 의미

문신은 사회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는 지위, 신분의 과시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느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표시이기도 하다. 또한 문신은 개인적으로 연정의 표시이기도 하고, 소속 집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했다.⁵³⁾ 아무튼 문신은 자신의 내면세계 혹은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신의 사회적 표현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사회성 표현

원래 문신은 사람들의 지위,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시 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을 행할 때였다. 이 때 문신은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했던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신은 신체적 발전의 각 단계에서 행해지지만 특히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형태를 시문할 시기는 보통 15~20세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 감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모양은 어린 아이 때에 시문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얼굴에 제한되며 목적은 병과 악령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사모아제도의 남성(그림3-1)⁵⁴⁾은 문신을 하지 않으면 남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할례를 끝내고 16세 정도가 되면 허리에서 무릎까지, 하복부, 엉덩이 등에 작은 갈퀴 모양의 도구로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상처를 내고 거기에 염료를 자입 하였다. 이 때 굉장한 고통과 함께 패혈증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문신이 완성되면 소년은 비로소 청년 집단에 들어가도록 허용 되었다. 소녀는 사춘기가 되면 미혼 여성의 집단에 들어가고, 이때 남성의 경우보다는 간단한 문신(그림3-2)⁵⁵⁾을 하였다.

53) 김임정,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과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23-38.

54) Karl Groning, 앞의 책, p.94.

55)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268.

인도의 나가족은 성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했으며, 10~11세가 되면 먼저 발에 문신을 했고 이듬해에 턱, 가슴, 어깨에 문신을 했다. 시술은 마을 부근의 숲속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때 남성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인도의 콘트족도 결혼 전의 여성이 문신을 했다.



그림3-1 사모아 남성의 문신하는 모습



그림3-2 사모아 여성의 문신하는 모습

마오리족의 경우 문신 장식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의 신분이었다. 또한 문신을 하지 않은 얼굴은 추한 얼굴로 간주되었다.⁵⁶⁾ 부족장(그림3-3)들은 문신의 디자인을 그들의 서명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무릎에서 허리까지도 하였다. 남성들의 얼굴에 행해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작은 선,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이마 쪽으로 퍼져 나가는 곡선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 문신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중 소용돌이(spiral) 무늬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용돌이는 불사(不死)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를 믿고 몸, 특히 얼굴에 소용돌이 문신을 새긴다.

여성(그림3-4)들은 주로 입술주변과 턱에만 하였으며, 붉은 입술을 추하게 여겼기

56) Don Sinclair, 『Decorative Art of the New Zealand Maori』, Reed Books, 1964, p.76.

때문에 입술에 푸른 문신을 했고, 드물게는 여성들도 이마나 코 주변에 작은 형태의 문신들을 더하였다.⁵⁷⁾



그림3-3 마오리족 족장의 얼굴 문신



그림3-4 마오리족 여성의 입술문신

말케사스섬의 여성들은 신체 부분 중 오직 팔과 손, 복부와 등 아래쪽에 한하여 문신을 행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생식기, 머리의 정수리 위로 계속되는 부분, 입과 코 안쪽, 눈꺼풀을 제외한 몸 전체에 문신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 존재하는 예술품을 과시했었고, 신체의 노출된 부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문신을 새겼다. 문신의 모양은 신체의 움직임에 맞게 디자인 되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⁵⁸⁾

제2절 연정의 표시

문신은 때로는 사랑의 결속 표시로서 몸에 새겼는데 이를 연비(聯臂)라고 한다. 조선 성종 때 기생으로 유명했던 어우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그녀는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내들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5~6명의 이름을 팔에 새겨 넣었다. 이규태의

57) 황춘섭·정현주, 『마오리족 전통복식과 문신고찰』, 복식문화연구 6, 1995, pp.257-8.

58) 빅토리아 에빈, 임숙자 역, 앞의 책, pp.88-93.

<한국인의 민속 문화>를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 하게 된다. 구한말 한강 밖 노량나루에 살았던 대석이라는 노처녀가 문안으로 시집갔는데, 첫날밤 윗저고리 벗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를 미심쩍게 생각한 남편은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부인의 저고리를 벗기고 팔을 보았더니 연비 입묵된 사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들통 나 부인은 문중에서 불 지짐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 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맹세하는 연비 문신을 하고 시집옴으로써, 시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의 대가였다.⁵⁹⁾ 이런 예들을 볼 때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표시로서 몸에 새긴 연비문신은 문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가중시켰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연비가 상당히 폭넓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대에 와서 커플 문신을 하는 연인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범죄자 표시

한때 문신은 ‘주홍 글씨’ 처럼 평생을 부인 할 수 없는 낙인이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범죄자 또는 죄수나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겼으며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유형자에게 문신을 강제로 시켜 낙인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전과자(그림3-5)⁶⁰⁾에게, 그리고 미국에서도 죄인들에게 문신을 넣어 낙인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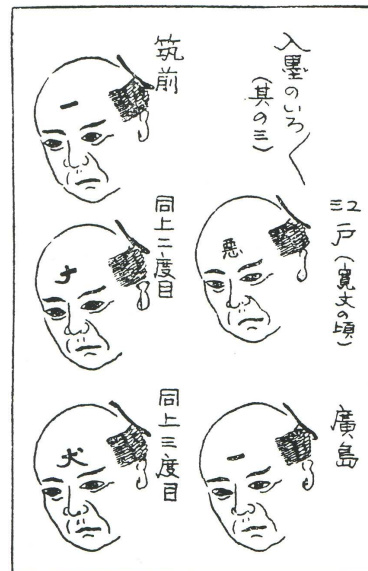


그림3-5 일본 전과자 문신의 예

제4절 집단 표시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대개 청소년 후기에 많이 새긴다. 집단 내에서 인정받으려는

59) 이규태, 『한국인의 민속 문화3-우리 민속 문화의 정체성』, 신원문화사, 서울, 2000, pp.202-203.

60) 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앞의 책, p.112.

의도로, 또는 전시나 과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등과 가슴에 문신을 많이 새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신 내용을 보면 한자로, 일심(一心)이나 참을 인(忍)자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충(忠), 필(必), 애(愛), 사(死), 불(佛) 등이 있었다. 일심(一心)은 글씨 자체가 쉬울 뿐만 아니라 집단에서의 맹세나 의리 등과도 연관이 되므로 이 글씨를 새긴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인(忍) 역시 조직 생활, 교도소 생활 등과 연관 되는 글자로 볼 수 있다.

동물 중에는 용, 호랑이가 많았는데, 이는 용맹스러움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생각 된다. 용, 호랑이를 경외하는 우리 민족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그림으로는 해골, 칼, 전갈, 일본 무사, 도끼, 상어, 독수리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거칠고 위협적이어서 남성다워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⁶¹⁾

청소년 후기에 상대방의 몸에 문신을 새겨 주면서, 또는 새김을 당하는 고통을 참으면서 서로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그 집단에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년식 때 문신을 신체에 새기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성인으로, 집단의 일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원시 종족의 문신 성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자아 표현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나 억눌림 같은 긴장 상태에서 해방 될 목적으로 문신을 한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의 한 표현으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한다. 혹은 타인을 향한 공격심을 남에게 발산하지 못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해친다. 불쾌감과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를 문신을 통해 해소하고 통쾌한 정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자해자들은 문신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학적 쾌감은 문신을 새기는 육체적 고통에서도 오는데 얇은 나뭇가지로 몸을 세게 내리쳐 찢어진 살 틈에 동물 피를 넣어 몸에 그림을 만드는 말케사스 원주민의 문신 풍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문신은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받을 때의 고통도 크지만, 문신 완성 후에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문신 소유자에게 아주 큰 만족감과 함께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61) 오세중, 『문신을 소유한 장정들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대한군진의학학술지 제25권 제1호, 1994, pp. 130-139.

제4장 한국 문신의 역사와 현재

제1절 한국 문신의 기원과 금기의 역사

1. 한국 문신의 기원

외국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신은 원시 혹은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신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역시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기록 ‘위지(魏志)’에 의하면 삼한시대에 문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마한인들이 ‘남녀시시유문신(男女時時有文身:남녀가 때때로 문신을 했다)’ 하였고, 변진(변한과 진한)인들이 ‘남녀반왜 역유문신(男女返倭 亦有文身:남녀가 왜와 같이 역시 문신을 했다)’ 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 민족의 남방계 문화유입설의 한 근거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마한·변진인의 문신은 최초의 정형화된 치장으로 자자(刺字)뿐만 아니라 장신구, 색깔, 무늬 등의 장식을 포함한 멋 내기 수단이자 신분 계급을 표시하는 상징이었으며 주부(呪符)이기도 했다. 즉 한국인 최초의 정형화된 치장이었다. 이 문신 가운데 색깔과 무늬가 왜인의 문신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신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성행한 것처럼 표현되었다고 믿어진다.⁶²⁾

이후 문신은 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에는 형벌로서의 문신이 행해지면서 습속으로서의 문신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문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선 시대를 거쳐 우리 사회에 꾸준히 존재해 왔음이 여러 문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금기성(禁忌性)의 역사

우리나라 문신의 역사는 깊고 그것이 늘 우리와 가까이 있어 왔다. 그러나 문신이 신분을 구별하고 범죄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점,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은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 깊게 하였다.

62)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서울, 1987, p.23.

가. 신분 구별과 범죄 표식으로의 문신의 활용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이 신분을 구별하고 범죄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사실이 여러 기록들을 통해 나타나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도둑과 노비에 형벌로 자자(刺字)한 예라든가, ‘전염병 예방과 치료 수단으로 문신한 예’ 63)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문신은 여러 범죄 유형 중 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되었다. 신체의 손상을 가장 큰 불효요, 수치로 여겼던 사회적 관념 하에서, 살갓에 상처를 내고 글자를 새기는 문신은 가장 부끄러운 모욕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의 필수품이었던 소와 전쟁에 활용되었던 말은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상이었기에 소나 말을 훔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치욕적인 문신을 새겨 넣었던 것이다.

또한 관물을 훔치고 사람을 상해하는 강도에 대해서도 자자형에 처했다.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자획의 넓이에 따라 바늘 10여개를 묶어서 살갓을 찔러 상처를 낸 후, 베로 그 부위를 싸매고, 봉한 후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 씻거나 빨아내서 흔적을 지우지 못하도록 매일 조사한 후, 3일이 지나 먹의 흔적이 피부에 깊숙이 새겨진 이후에 놓아 보냈다. 만약 전에 자자하였던 글자를 제거한 자에게는 곤장 60대를 때리고 다시 글자를 새겨 넣었다. 처음에 자자한 부위는 팔과 어깨 부위에 글자를 새겨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나, 이 방법이 옷에 의해 가려지고 뉘우침 없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자 얼굴에 자자를 시행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조선시대 문신 운영 실태를 보면 태종(太宗)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태종 이후에도 한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책되기도 하였다. 자자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절도범이 자주 창궐한 세종(世宗) 때였다. 세종 25년 양쪽 뺨에 글자를 새기는 경면(黥面)이 실시되었으나, 이듬해 세종 스스로가 너무 잔혹하다고 판단하여 경면을 중지시켰고, 단근형(斷筋形)과 유배형이 자자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절도 행위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단근형과 유배형만으로는 도둑을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조(1455-1468) 11년 경면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경면 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63) 전완길, 위의 책, p.22.

자자형에 사용된 글자도 다양하다. 훔친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사람의 상해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새겨졌는데 일반 절도자에게는 ‘절도(竊盜)’ 두 자를 새겼고, 소나 말을 도적질한 자에게는 ‘도우(盜牛)’, ‘도마(盜馬)’, ‘도살우(盜殺牛)’, ‘도살마(盜殺馬)’ 를 자자하였다. 자자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얼굴에 글자가 새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굶은일을 해 주고 밥을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하였다. 자자형이 활성화 된 이후 거지의 대부분은 얼굴에 글자가 새겨진 범죄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성종(1469-1494) 이후부터는 경면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성종 때에는 범죄자와 장물아비를 구분하였으며 절도와 강도 또한 구분하였다.

연산군(1494-1506) 때는 도망친 노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망한 공·사 노비를 체포하여 남자는 왼쪽 뺨에 ‘도노(盜奴)’ 를 여자는 오른쪽 뺨에 ‘도비(盜婢)’ 를 자자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도망간 자 뿐만 아니라 종들이 도망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낙동이씨종(駱洞李奴)’, ‘제동박씨종(劑洞朴婢)’ 이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겨 노비임을 표시해 두기도 하였다.⁶⁴⁾ 이처럼 자신이 거느리던 노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에 특별한 문자를 새긴 조선 시대의 문신은 양반 체제를 유지하는 노비 문서 역할을 했으며, 노비를 재산으로 인식하였기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진 노비는 종신토록 신분을 바꿀 수 없었다.

나. 유교적인 가치관의 영향

우리 역사에서 문신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과 유교사회의 몸 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화이론(華夷論)의 영향으로 문신이 자국문화인 화(華)와 구분되는 오랑캐 이(夷)의 문화로서 명명되면서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한 층 더 강화 되었다.⁶⁵⁾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교과서 역할을 해 온 효경(孝敬)에서의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 (受之父母)니 불감훼상(不敢毀傷)이 효지시야 (孝之始也)’ 라는 말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털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 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변형을 주는 것을 불경한

64) 문형진, 『문신의 습속과 그 유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제 4호, 2000, p.175.

65) 조현설, 『문신의 역사』, 살림출판사, 서울, 2003. pp.64-69.

태도로 인식하여 이를 금기시 했다. 문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몸에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투입하고, 변형을 하는 그야말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불효이며 패륜이었다.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유교사상에서 몸은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몸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교 사회의 몸에 대한 처리와 운용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선조에 의하여 제한받고 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처리와 실천은 늘 조상과의 연계성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최근에 유럽회관에서 가진 「취향에 관한 두 가지 시선」이란 인터뷰 내용에서⁶⁶⁾ 나타난 ‘문신은 절대 반대다. 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면 광패가 아닐까하는 이질감을 느낀다.’라는 반응은 우리 기성세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신에 대한 견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3. 한국 문신의 현재

한국에서 현대 문신은 193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점상 문신에서 시작 되었다. 점상 문신이란 팔의 안쪽에 직경 2~6밀리미터의 크고 작은 점 같은 형태로 살결이 부드러운 부분에 먹칠한 바늘을 꺾어 피부를 통과시켜 만든 것이다. 이는 함부로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조기 결혼이나 일부종사를 강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동병상련의 여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서로에게 점상 문신을 새기면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이후 국내에 미용 문신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말경 중국과 대만을 통하여 아무런 체계와 교육적인 기반 없이 비위생적으로 시술되기 시작했다. 짧은 역사이지만 당시 국내에는 잘못된 미용 문신을 지울 수 있는 레이저 보급이 전무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회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보사부에서는 미용문신 시술을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를 의료법에 귀속시켜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신 인구는 약 50만~80만정도, 문신 시술자는 약 5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싸이월드에만 문신 관련 클럽이 400여 개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문신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6) 김이이(프로듀서), 손속춘(사회), “취향에 관한 두 가지 시선”, 톨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EBS, 2006. 2.

이와 같이 일반화되고 있는 문신은 그 시술의 의도가 미를 추구하는 미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문신은 21세기 최첨단 미용 기술로서 아시아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호주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기(機器)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술을 양성하는 공인기관은 아직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클럽이나 카페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⁶⁷⁾을 보면 약 3~4주의 기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가. 피부 및 위생(의료계 종사자 1명)

나. 문신경력 5년 이상자의 특별강의

다. 전문직 일러스트 1명 주 3회 강의

라. 문신의 실제 주 3회 강의

마. 바늘 제작 및 머신 분해 조립. 원리

이러한 현장의 문신 스튜디오를 보면 매우 위생적으로 꾸며진 곳(그림4-1)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곳이 열악한 상태에서 수강과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4-1 위생적인 타투 샵의 내부

즉 문신을 하는 환경적인 면이 열악하며 문신 작업에 종사하는 문신사들이 투철한 직업 의식이나 아티스트적인 자부심보다는 돈을 번다는 의식이 더 지배적이다. 또

67) http://club.cyworld.nate.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680110#

문신을 받는 사람들도 문신에 대한 애착이나 예술적 수준의 차이를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신에 연관된 사람들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 시술이 합법화되지 못하여 불법으로서 제제를 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문신 수준을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한국의 문신아티스트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교육받지 않고 시술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제제 조치도 요구된다.

제2절 대중문화로서 문신의 인식변화

유교 문화의 몸에 대한 윤리적 통제와 함께 불신임과 사회적 타자로서 낙인 된 우리나라 금기의 문신 역사 속에서의 문신은 선량한 일반 대중들의 미풍양속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탈 행위로서 명백히 금기되어야 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6.25 이후 특히 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거리의 불량자나 건달 등의 혐오스러운 문화로 부각되면서 문신의 문화적 지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신에 대한 개인의 취향은 억제되고 문화는 획일화되었다. 우리라는 집단화된 코드의 한국 사회는 보편적 균질성을 위해 모든 것을 규범화시키고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에 의한 차이를 금기와 규제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타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어떤 종류의 문신이든 간에 몸에 하는 문신에 대하여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감성으로서의 문신은 허용하지 않고 몸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문신이 병역 기피 수단과 결부되거나 조직폭력배들의 자기 과시용으로 쓰인다는 통념으로 범죄적 표지라는 편견에 기인하여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때문에 병역법 또는 보건법, 의료법에 대한 제도적 통제로서 병역법은 군대라는 공공의 장소에 범죄적 흔적을 지닌 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제한한 것이다. 경찰공무원 역시 문신한 사람과 같은 공간(空間)에 위치하는 것조차 터부시하여 문신한 사람은 임용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법률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의 하나로 보인다.

문신애호가들은 문신을 한 사람들을 조직폭력배들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신에 열중하고 옹호하는 이들은 문신을 몸에 대한 개성의 표현이며 규격화된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차별화된 몸을 지양한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90년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어갔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문신이 갖는 우리사회의 정체성이나 획일성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탈성(逸脫性)에 관심을 갖고 몸에 대한 지나친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문신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는 몸의 문화적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신체적·문화적 표현 영역으로서, 혹은 미용 행위로서 몸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영구적 문신이나 일회용 문신은 문신이 본래 갖고 있던 문화적 속성인 계급적, 세대적, 저항의 형식보다 그 자체로 오락화 되며 참여적 오락의 형태로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대중 스타들의 문신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문신에 대한 소비 증가와 연예인, 가수, 스포츠 스타와 같은 대중 스타들의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이 하나의 대중 예술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2003년 5월 3일 한, 일전 때 축구선수 안정환의 골 세레머니에서 그의 부인에게 보이기 위해 팔에 새긴 문신(그림4-2)은 당시 TV를 시청하던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많은 대중스타들에게서 문신이 등장 했으며 그 과정에서 문신은 이제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몸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적 형태라는 긍정적 인식을 도출해 내었다.

그림4-2 축구 선수 안정환의 문신

대중스타들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행위에 영향을 주며 스타들의 문신은 새로운 문화행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TV매체를 통해 스타가 탄생되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패션, 장신구 등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심리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대중스타 들은 유행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중들의 적극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⁶⁸⁾

청년 집단에서 문신이 유행하게 된 것은 대중스타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모방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매체의 사건과 현상을 집요하게 모방하는 팬덤(fandom) 문화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세계적 스타들이 화장술로서 또는 예술로서의 문신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한국 MTV에 출연한 밴드의 멤버들이 문신을 했고, 그들 외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그림4-3)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문신으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4-3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의 문신

여기에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출현으로 생겨난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들이 21세기의 새로운 하위 문화 형성의 중심 주체가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일상 문화가 다양하고 탈 경계화 되고, 탈 금기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 수술이나 다이어트처럼 몸의 변형을 통한 몸의 소비(消費)가 새로운 옷을 걸치듯 소비하는 가벼움의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요즈음 문신은 대중스타들의 아이콘으로, 패션의 하나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유희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도입기와 수용기(유행)를 거쳐 쇠퇴기(정착)의 과정을 겪는다.

68) 이일래, 『대중소비사회에서 스타이미지의 상품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0, p.2.

현재 문신의 영역은 한국에서 어쩌면 새로운 도입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사회 환경은 문신에 대하여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생활양식이나 위상은 한국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부분이 시대에 맞게 변하고 점차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가까운 베이징에서 문신에 관한 국제 대회가 열리는 등 오늘날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 문신은 금기를 뛰어넘어 개인적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연예인들은 문신을 합법화하자며 ‘타투 법제화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서 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문신을 금기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제 문신은 부정적으로만 볼 게 못 된다는 것이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신 문화도 미용 문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며, 문신은 화장의 한 분야로서 미용술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미용 문화로서 문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논쟁의 결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코스메틱 미용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문신 관련 기관 및 시술소 그리고 재료를 공급해주는 곳이 무려 148,000개에 달한다고 하니 이는 선진국에선 문신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이제 문신을 불법 행위나 의료 행위로서가 아닌 미용 행위로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문신에 대한 인식과 합법화에 대한 생각을 설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절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분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고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나이 범주는 18세 이하라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등학생들이 작성한 자기기입식 설문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고, 중등학생들은 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치관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부 회수하였으나, 이 중 중등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312부의 유효 표본을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data coding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과 Excel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명목 척도를 이용하였고,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적 자료가 문신에 대한 인식과 문신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 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한 것으로 15개의 세부 문항으로, 두 번째 부분은 문신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한 것 5개 문항으로, 세 번째 부분은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개 문항이다.

2. 실증 분석 결과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실증 분석을 위한 본 조사에 이용된 표본 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은 전체표본의 34.3%인 107명이며, 여성 집단이 205명으로서 65.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2) 연령대별에 따른 구성에서 20대가 92명으로 전체의 29.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대가 71명으로 22.8%, 30대가 57명으로 18.3%, 40대가 51명으로 16.3%, 50대 이상이 41명으로 13.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3) 혼인 상태 여부는 미혼이 전체표본의 68.9%인 215명이며, 배우자 있음이 75명으로서 24.0%, 배우자 사망·이혼·별거가 각각 2명으로서 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을 하지 않은 분포는 5.1%로 나타났다.
- (4) 종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27.9%인 87명이며, 불교가 18.6%인 58명이며, 천주교가 11.9%인 37명이며, 무 응답자를 포함한 기타가 40.8%인 130명으로 집계되었다.
- (5) 최종학력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중퇴·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113명으로 집계되고 표본 집단 중에서 3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 중퇴·졸업, 중학교 중퇴·졸업, 전문대 중퇴·졸업, 대학원 이상, 초등학교 중퇴·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월평균 가계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13명인 4.2%,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64명인 20.%,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가 79명인 25.3%,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가 66명인 21.2%, 400만원 이상이 82명인 26.3%, 무응답자가 8명인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 (7) 경제수준은 전체표본의 74.7%인 233명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15.4%인 48명이 '어려운 편이다', 6.7%인 21명이 '풍족한 편이다', 1.9%인 6명이 '매우 어렵다', 1.0%인 3명이 '매우 풍족하다', 무 응답자 0.3%인 1명으로 집계되었다.
- (8) 본인의 의식은 48.7%인 152명이 '보통이다', 30.8%인 96명이 '개방적이다', 19.2%인 60명이 '보수적이다', 1.3%가 무 응답자를 포함한 기타로 나타났다.
- (9) 직업은 구체적으로 자기 기입을 하도록 하였으나, 임의적으로 직업군을 분류하여 데이터를 수정하였다. 전체표본의 47.4%인 148명이 학생, 12.5%인 39명이 기타, 11.2%인 35명이 사업, 10.9%인 34명이 회사원, 9.0%인 28명이 주부, 5.4%인 17명이 무직, 2.6%인 8명이 공무원, 1.0%인 3명이 무응답자로 나타났다.

표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요 인	내 용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자	107	34.3
	여자	205	65.7
연 령	10대	71	22.8
	20대	92	29.5
	30대	57	18.3
	40대	51	16.3
	50대 이상	41	13.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75	24.0
	배우자 사망	2	0.6
	이혼	2	0.6
	별거	2	0.6
	미혼	215	68.9
	무응답	16	5.1
종 교	기독교	87	27.9
	천주교	37	11.9
	불교	58	18.6
	기타	127	40.7
	무응답	3	1.0

요 인	내 용	빈 도(명)	비 율(%)
최종학력	무학	0	0.0
	초등학교 중퇴·졸업	3	1.0
	중학교 중퇴·졸업	62	19.9
	고등학교 중퇴·졸업	113	36.2
	전문대 중퇴·졸업	55	17.6
	4년제 대학교 중퇴·졸업	72	23.1
	대학원 이상	7	2.2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13	4.2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64	20.5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79	25.3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66	21.2
	400만원 이상	82	26.3
경제수준	무응답	8	2.6
	매우 어렵다	6	1.9
	어려운 편이다	48	15.4
	보통이다	233	74.7
	풍족한 편이다	21	6.7
	매우 풍족하다	3	1.0
본인의 의식	무응답	1	0.3
	보수적이다	60	19.2
	개방적이다	96	30.8
	보통이다	152	48.7
	기타	3	1.0
직 업	무응답	1	0.3
	학생	148	47.4
	공무원	8	2.6
	회사원	34	10.9
	사업	35	11.2
	주부	28	9.0
	무직	17	5.4
	기타	39	12.5
무응답	3	1.0	

나.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연구자는 각종 통계 분석에 앞서 측정된 변수들이 지닌 분포의 특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분포의 특성이란 자료가 어느 곳에 몰려있는 정도, 또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한다. 범주형 변수를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각각의 변수에 해당되는 변수값의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빈도 분석이라 한다.

또한 연구자가 복잡한 자료를 상황표로 만들어서,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교차 분석이다.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교차(cross)하는 교차표로 만들어 각각에 해당하는 빈도와 비율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교차 분석에서 두 변수가 상호 독립적인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설문지는 성격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두 부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특성과 응답간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연령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문신에 대한 인식

(가) 문신의 이미지

문신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총 312명 중에서 128명(41%)이 부정적, 99명(32%)이 긍정적, 85명(27%)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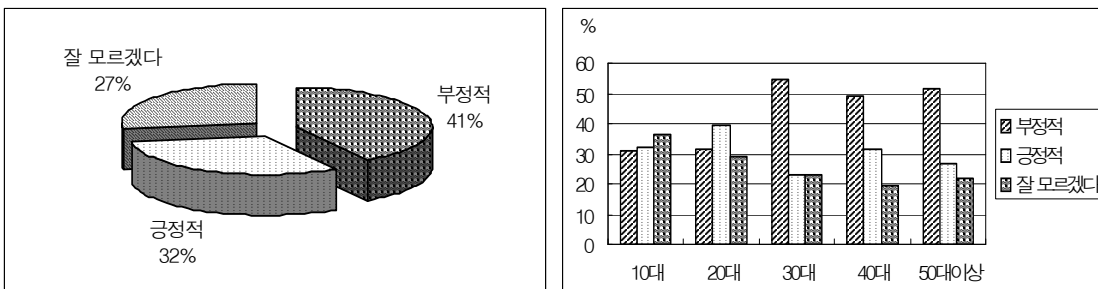


그림4-4 문신의 이미지

문신의 이미지와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 하지 않은 변수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의한 변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X^2=15.789$, 자유도(df)는 8, 유의 확률이 .046으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식은 $X^2=29.468$, 자유도(df)는 6, 유의 확률이 .000으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수적인 성향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방적인 성향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에 대해 총 312명 중에서 187명(60%)이 조직폭력배, 85명(27%)이 연예인, 21명(7%)이 스포츠스타, 19명(6%)이 기타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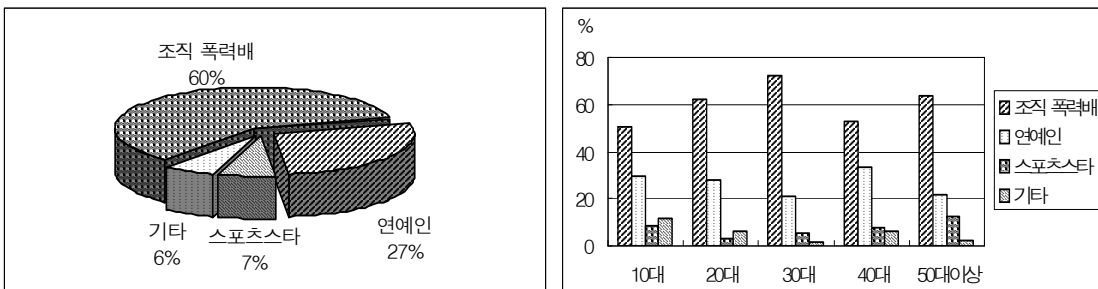


그림4-5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

그러나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과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조직폭력배를 가장 많이 떠올렸고, 10대~20대는 스포츠스타, 연예인 순으로, 30대~50대 이상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순으로 떠올렸다.

(다) 문신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총 312명 중에서 207명(67%)이 있다, 104명(33%)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신을 한 사람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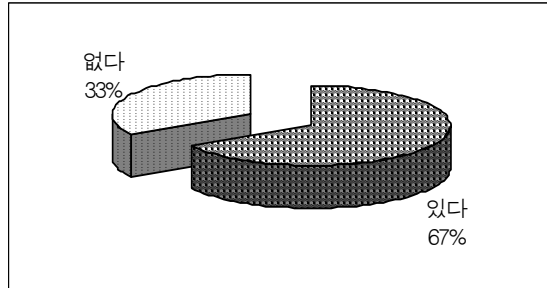


그림4-6 문신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라) 문신을 본 대상

문신을 보았다고 대답한 총 208명 중에서 75명(36%)이 조직폭력배, 74명(36%)이 일반인, 48명(23%)이 연예인, 7명(3%)이 기타, 4명(2%)이 스포츠스타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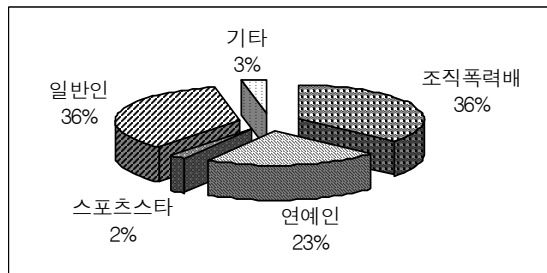


그림4-7 문신을 보았다면 대상은

(마) 문신을 보았을 때의 느낌

4개의 문항으로 문신을 보았을 때의 느낌에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146명(76%)이 부정적, 25명(13%)이 잘 모르겠다, 22명(11%)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연예인에 대해서는 105명(54%)이 긍정적, 46명(24%)이 잘 모르겠다, 44명(22%)이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스포츠스타에 대해서는 83명(44%)이 긍정적, 56명(30%)이 잘 모르겠다, 50명(26%)이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76명(38%)이 긍정적, 75명(38%)이 부정적, 47명(24%)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들의 문신을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신을 부정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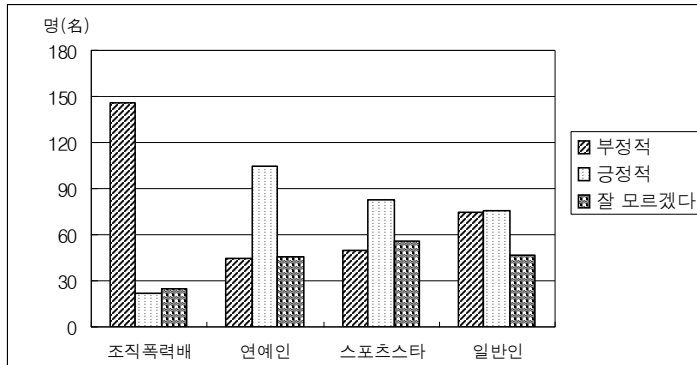


그림4-8 문신을 보았을 때의 느낌

(바) 대상에 대한 문신의 이미지

쓰임 특성이 다른 5개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미지를 물어보았다. 조직폭력배의 문신인 사진1에 대해서는 266명(88%)이 부정적, 19명(6%)이 잘 모르겠다, 17명(6%)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남성연예인의 문신인 사진2에 대해서는 190명(63%)이 긍정적, 59명(20%)이 부정적, 53명(18%)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여성연예인의 문신인 사진3에 대해서는 187명(62%)이 긍정적, 58명(19%)이 부정적, 57명(19%)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스포츠스타의 문신인 사진4에 대해서는 136명(45%)이 긍정적, 88명(29%)이 부정적, 78명(26%)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일반인의 문신인 사진5에 대해서는 174명(58%)이 긍정적, 67명(22%)이 잘 모르겠다, 61명(20%)이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위의 5번 문항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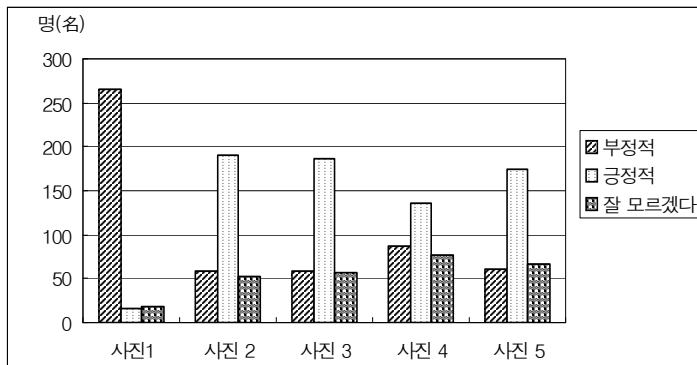


그림4-9 대상에 대한 문신의 이미지

(사) 문신한 사람의 예상 분포

총 312명 중에서 83명(27%)이 10만 이하, 82명(27%)이 50만 이하, 77명(25%)이 100만 이하, 39명(13%)이 200만 이상, 27명(9%)이 200만 이하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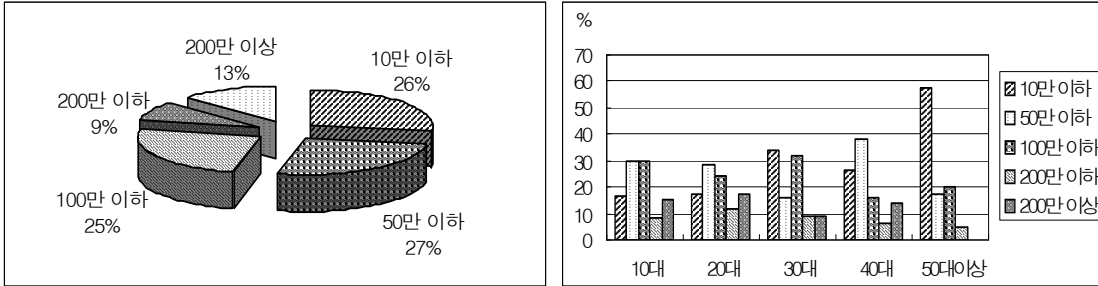


그림4-10 문신한 사람의 예상 분포

문신한 사람의 예상 분포와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chi^2=40.854$, 자유도(df)는 16, 유의 확률이 .001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0대, 20대, 40대는 50만 이하라고 생각하며 30대, 50대 이상은 10만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문신을 하는 이유

총 312명 중에서 163명(53%)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57명(18%)이 호기심에, 51명(16%)이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38명(12%)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2명 (1%)이 기타로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신의 개념이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패션의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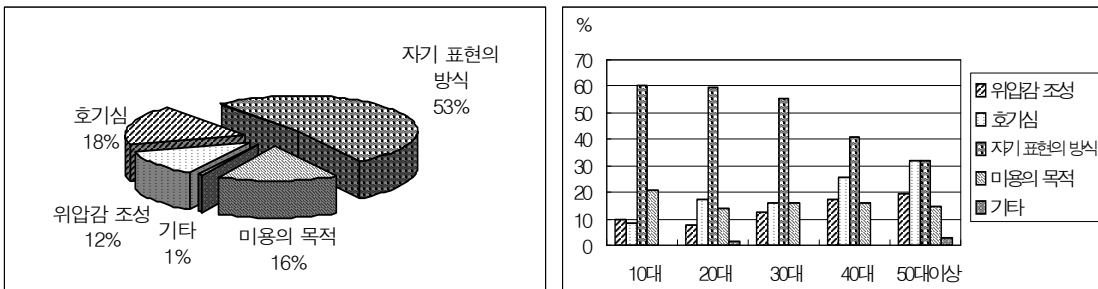


그림4-11 문신을 하는 이유

문신을 하는 이유와 연령을 교차 분석을 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10대는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호기심 순으로, 20대~50대 이상은 호기심,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총 312명 중에서 135명(43%)이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78명(25%)이 잘 모르겠다, 62명(20%)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37명(12%)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이미지의 문신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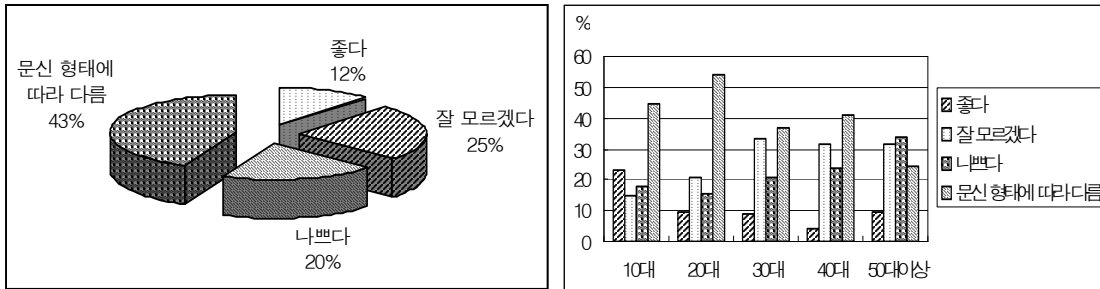


그림4-12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chi^2=8.070$, 자유도(df)는 3, 유의 확률이 .045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자는 나쁘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여자는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chi^2=32.349$, 자유도(df)는 12, 유의 확률이 .001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0대~40대는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며 50대 이상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낮을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chi^2=19.495$, 자유도(df)는 9, 유의 확률이 .021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와 기타인 경우에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과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의식은 $\chi^2=45.176$, 자유도(df)는 9, 유의 확률이 .000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며 개방적인 성향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chi^2=43.515$, 자유도(df)는 18, 유의 확률이 .001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은 좋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며 무직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자기 표현 방식의 문신 활용

문신이 화장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에 대한 생각은 총 312명 중에서 135명(44%)이 찬성, 92명(29%)이 잘 모르겠다, 51명(16%)이 반대, 24명(8%)이 적극적으로 찬성, 10명(3%)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하여, 65%이상이 문신이 화장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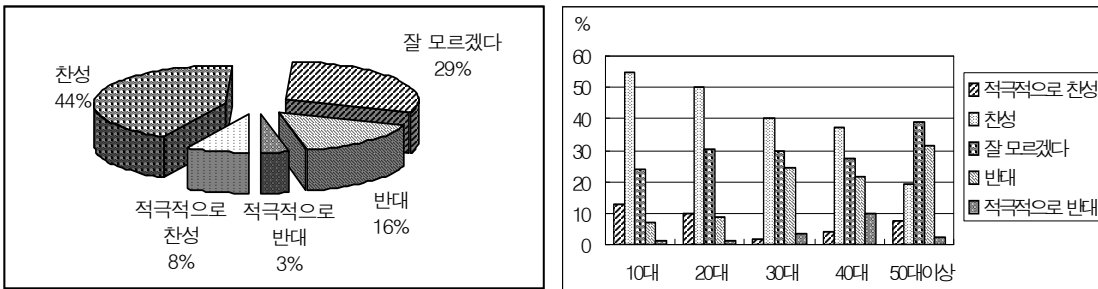


그림4-13 자기표현 방식의 문신 활용

문신이 화장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chi^2=42.766$, 자유도(df)는 16, 유의 확률이 .000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0대~40대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문신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식은 $\chi^2=67.750$, 자유도(df)는 12, 유의 확률이 .000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면 반대한다고, 개방적인 성향이면 찬성한다고, 보통적인 성향이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의식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은 $\chi^2=50.010$, 자유도(df)는 24, 유의 확률이 .001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무직인 경우에만 반대하며 그 외의 직업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 문신을 해 본 경험

총 311명 중에서 274명(88%)이 없다, 37명(12%)이 있다고 답하였다. 문신을 해 본 경험과 연령을 교차 분석을 한 결과 $\chi^2=19.836$, 자유도(df)는 4, 유의 확률이 .001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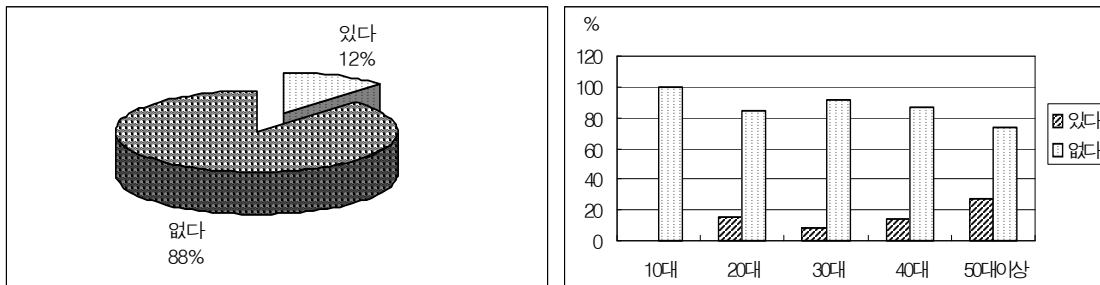


그림4-14 문신을 해 본 경험

모든 연령대에서 문신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절대적인데, 특히 미성년자인 10대의 경우에는 문신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문신을 한 목적

문신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총 37명 중에서 18명(48%)이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13명(35%)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5명(14%)이 호기심에, 1명(3%)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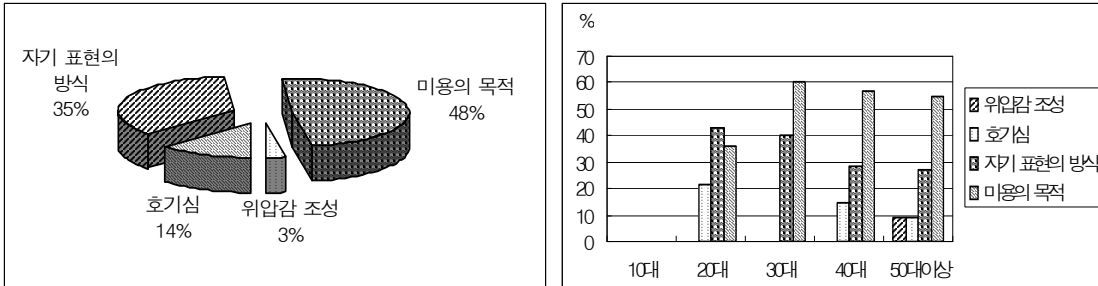


그림4-15 문신을 한 목적

문신을 한 목적과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30대~50대 이상은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문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

문신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총 37명 중에서 17명(46%)이 좋았다, 13명(35%)이 그저 그랬다, 7명(19%)이 후회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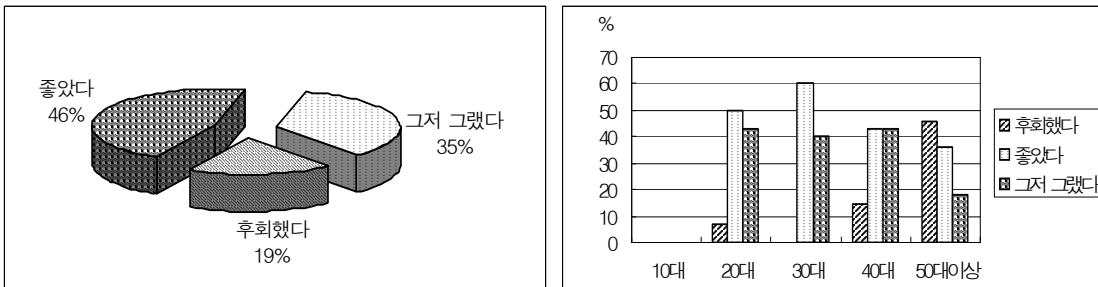


그림4-16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과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40대는 좋았다고 생각하며, 50대 이상은 후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 문신을 할 의향

대답한 총 305명 중에서 148명(48%)이 할 의향이 없다, 57명(19%)이 하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든다, 50명(16%)이 잘 모르겠다, 48명(16%)이 하고 싶다, 2명(1%)이 기타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직접 문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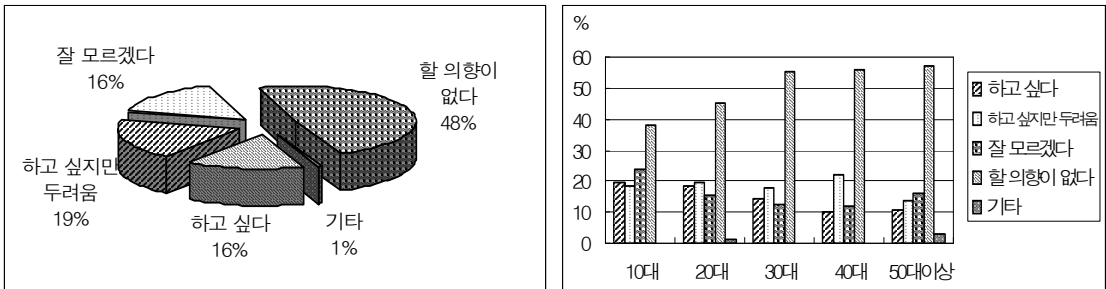


그림4-17 문신을 할 의향

문신을 할 의향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chi^2=12.214$, 자유도(df)는 4, 유의 확률이 .016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할 의향이 없으며 여자는 하고 싶지만 두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식은 $\chi^2=62.551$, 자유도(df)는 12, 유의 확률이 .000로서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면 할 의향이 없으며 개방적인 성향이면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문신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 문신 시술 대상

만약 문신 시술을 받는다면 시술을 받고 싶은 대상으로 총 312명 중 305명이 대답하였는데, 204명(67%)이 문신전문가, 57명(19%)이 의사, 38명(12%)이 미용사, 6명(2%)이 기타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의사나 미용사 보다는 전문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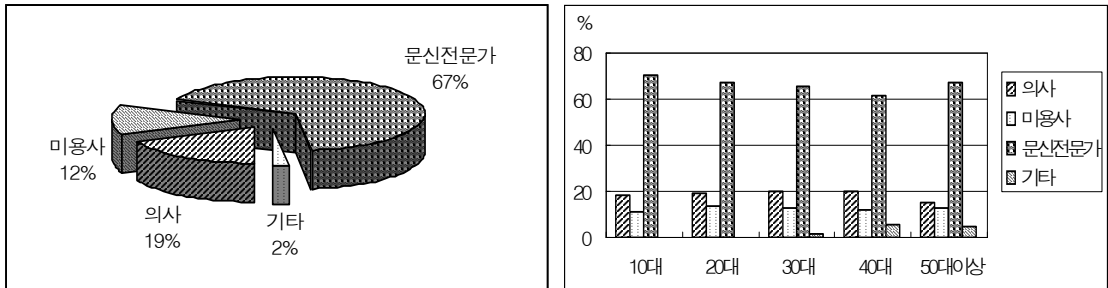


그림4-18 문신 시술 대상

문신 시술 대상과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문신전문가, 의사, 미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2) 문신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

(가) 의료인외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의 불법 인지(認知) 여부

총 312명 중에서 191명(61%)이 안다, 121명(39%)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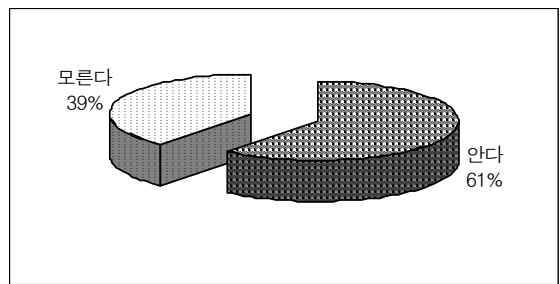


그림4-19 의료인외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의 불법 인지(認知) 여부

(나) 연예인들에게 문신 시술 행위를 해주었던 문신시술자가 구속되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구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가?

총 312명 중에서 275명(89%)이 없다, 35명(11%)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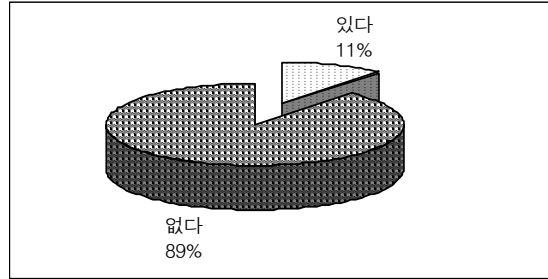


그림4-20 문신 관련 구속사건 인지(認知) 여부

(다) 미국 뉴욕 주 등의 문신 행위 합법화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 312명 중에서 123명(39%)이 잘 모르겠다, 102명(33%)이 찬성한다, 86명(28%)이 반대한다, 1명(0.3%)이 기타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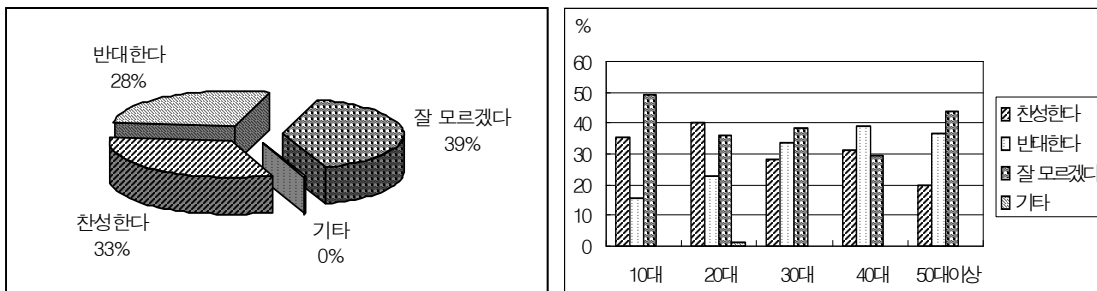


그림4-21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생각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X^2=21.503$, 자유도(df)는 12, 유의 확률이 .043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월평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문신 행위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교차 분석한 결과 변수간의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10대, 30대, 50대는 잘 모르겠다, 20대는 찬성한다, 40대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 한다면 적당한 방법

총 312명 중에서 100명(32%)이 2번, 98명(32%)이 1번, 62명(20%)이 4번, 48명(15%)이 3번, 2명 (1%)이 5번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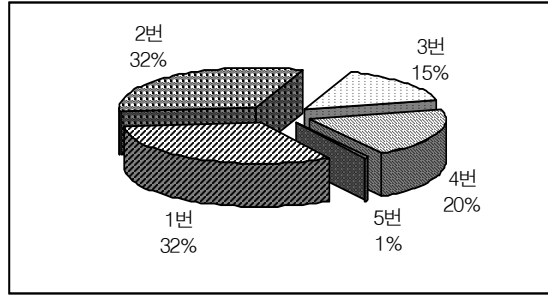


그림4-22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방법

- 주 :
- 1) 문신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게 한다.
 - 2)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교육을 연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한다.
 - 3) 미용목적의 문신은 미용사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4) 위생부분에 대한 엄격한 지도아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다.
 - 5) 기타

(마) 문신의 유형을 규제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총 312명 중에서 136명(44%)이 연령제한, 91명(29%)이 문신의 크기, 85명(27%)이 문신 그림의 종류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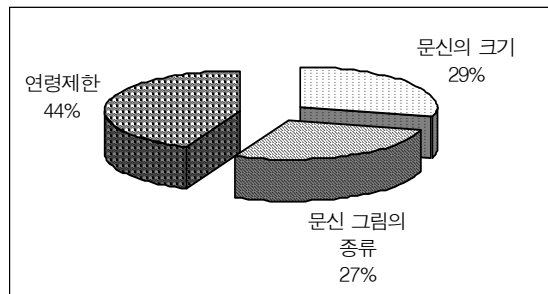


그림4-23문신의 유형 규제 대상

다. 조사결과의 요약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고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312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의 문신을 제외한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점과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문신에 대한 찬성의견이 65%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3%)이 반대한다는 의견(28%)보다 많았다는 점은 문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4-2 빈도 분석 결과표

문항	내용		빈도(비율)				
			부정적	긍정적	잘 모르겠다		
1	문신의 이미지		128(41%)	99(32%)	85(27%)		
2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		조직 폭력배	연예인	스포츠스타	기타	
			187(60%)	85(27%)	21(7%)	19(6%)	
3	문신을 한 사람을 본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207(67%)	104(33%)			
4	문신을 보았다면 대상은?		조직 폭력배	일반인	연예인	스포츠스타	기타
			75(36%)	74(36%)	48(23%)	7(3%)	4(2%)
5	문신을 보았을 때의 느낌	조직폭력배	부정적	잘모름	긍정적		
			146(76%)	25(13%)	22(11%)		
		연예인	긍정적	잘모름	부정적		
			105(54%)	46(24%)	44(22%)		
		스포츠스타	긍정적	잘모름	부정적		
		83(44%)	56(30%)	50(26%)			
		일반인	긍정적	부정적	잘모름		
			76(38%)	75(38%)	47(24%)		
6	대상에 대한 문신의 이미지	조직폭력배사진	부정적	잘모름	긍정적		
			266(88%)	17(6%)	17(6%)		
		남자연예인사진	긍정적	부정적	잘모름		
			190(63%)	59(20%)	53(18%)		
		여자연예인사진	긍정적	부정적	잘모름		
			187(62%)	58(19%)	57(19%)		
	스포츠스타사진	긍정적	부정적	잘모름			
			136(45%)	88(29%)	78(26%)		
		일반인사진	긍정적	잘모름	부정적		
			174(58%)	67(22%)	61(20%)		

문항	내용	빈도(비율)				
		10만 이하	50만 이하	100만 이하	200만 이상	200만 이하
7	문신한 사람의 예상 분포	10만 이하	50만 이하	100만 이하	200만 이상	200만 이하
		83(27%)	82(27%)	77(25%)	39(13%)	27(9%)
8	문신을 하는 이유	자기표현 방식	호기심	외모 꾸미기	위압감 조성	기타
		163(53%)	57(18%)	51(16%)	38(12%)	2(1%)
9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형태에 따라 다름	잘 모르겠다	나쁘다	좋다	
		135(43%)	78(25%)	62(20%)	37(12%)	
10	자기표현 방식의 문신 활용	찬성	잘 모르겠다	반대	적극적 찬성	적극적 반대
		135(44%)	92(29%)	51(16%)	24(8%)	10(3%)
11	문신을 해 본 경험	없다	있다			
		274(88%)	37(12%)			
12	문신을 한 목적	외모 꾸미기	자기표현 방식	호기심	위압감 조성	
		18(48%)	13(35%)	5(5%)	1(1%)	
13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	좋았다	그저 그랬다	후회 했다		
		17(46%)	13(35%)	7(19%)		
14	문신을 할 의향	없다	하고 싶지만 두렵다	잘 모르겠다	하고 싶다	기타
		148(48%)	57(19%)	50(16%)	48(16%)	2(1%)
15	문신 시술을 받고 싶은 대상	문신 전문가	의사	미용사	기타	
		204(67%)	57(19%)	38(12%)	6(2%)	
1	의료인외 문신 시술 행위 불법 인지(認知) 여부	안다	모른다			
		191(61%)	121(39%)			
2	문신관련 구속사건 인지(認知) 여부	없다	있다			
		275(89%)	35(11%)			
3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	잘모름	찬성	반대	기타	
		123(39%)	102(33%)	86(28%)	1(0.3%)	
4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방법 (p. 75 주 참고)	2번	1번	4번	3번	5번
		100(32%)	98(32%)	62(20%)	48(15%)	2(1%)
5	문신의 유형 규제대상	연령	크기	종류		
		136(44%)	91(29%)	85(27%)		

표4-3 문신의 이미지 * 일반적 특성 교차표

		문신의 이미지			전체	
		부정적	긍정적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49(38.3%)	32(32.3%)	26(30.6%)	107(34.3%)	$\chi^2=1.592$ df=2 p=.451
	여자	79(61.7%)	67(67.7%)	59(69.4%)	205(65.7%)	
소 계		128(100%)	99(100%)	85(100%)	312(100%)	
연령	10대	22(17.2%)	23(23.2%)	26(30.6%)	71(22.8%)	$\chi^2=15.789$ df=8 p=.046
	20대	29(22.7%)	36(36.4%)	27(31.8%)	92(29.5%)	
	30대	31(24.2%)	13(13.1%)	13(15.3%)	57(18.3%)	
	40대	25(19.5%)	16(16.2%)	10(11.8%)	51(16.3%)	
	50대 이상	21(16.4%)	11(11.1%)	9(10.6%)	41(13.1%)	
소 계		128(100%)	99(100%)	85(100%)	312(100%)	
종교	기독교	40(31.5%)	24(24.5%)	23(27.4%)	87(28.2%)	$\chi^2=7.421$ df=6 p=.284
	천주교	18(14.2%)	10(10.2%)	9(10.7%)	37(12.0%)	
	불교	27(21.3%)	20(20.4%)	11(13.1%)	58(18.8%)	
	기타	42(33.1%)	44(44.9%)	41(48.8%)	127(41.1%)	
소 계		127(100%)	98(100%)	84(100%)	309(100%)	
최종 학력	초등 중퇴, 졸업	1(0.8%)	2(2.0%)	-	3(1.0%)	$\chi^2=10.074$ df=10 p=.434
	중등 중퇴, 졸업	20(15.6%)	20(20.2%)	22(25.9%)	62(19.9%)	
	고등 중퇴, 졸업	49(38.3%)	37(37.4%)	27(31.8%)	113(36.2%)	
	전문대 중퇴, 졸업	20(15.6%)	17(17.2%)	18(21.2%)	55(17.6%)	
	4년제대학 중퇴, 졸업	34(26.6%)	20(20.2%)	18(21.2%)	72(23.1%)	
소 계		128(100%)	99(100%)	85(100%)	312(100%)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9(7.3%)	2(2.0%)	2(2.4%)	13(4.3%)	$\chi^2=9.699$ df=8 p=.287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6(21.0%)	19(19.4%)	19(23.2%)	64(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7(29.8%)	27(27.6%)	15(18.3%)	79(26.0%)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22(17.7%)	23(23.5%)	21(25.6%)	66(21.7%)	
	400만원 이상	30(24.2%)	27(27.6%)	25(30.5%)	82(27.0%)	
소 계		124(100%)	98(100%)	82(100%)	304(100%)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3(2.3%)	2(2.0%)	1(1.2%)	6(1.9%)	$\chi^2=5.943$ df=8 p=.654
	어려운 편이다	22(17.2%)	12(12.1%)	14(16.7%)	48(15.4%)	
	보통이다	92(71.9%)	78(78.8%)	63(75.0%)	233(74.9%)	
	풍족한 편이다	11(8.6%)	6(6.1%)	4(4.8%)	21(6.8%)	
	매우 풍족하다	-	1(1.0%)	2(2.4%)	3(1.0%)	
소 계		128(100%)	99(100%)	84(100%)	311(100%)	
본인의 의식	보수적이다	40(31.3%)	8(8.1%)	12(14.3%)	60(19.3%)	$\chi^2=29.468$ df=6 p=.000
	개방적이다	26(20.3%)	45(45.5%)	25(29.8%)	96(30.9%)	
	보통이다	61(47.7%)	45(45.5%)	46(54.8%)	152(48.9%)	
	기타	1(0.8%)	1(1.0%)	1(1.2%)	3(1.0%)	
소 계		128(100%)	99(100%)	84(100%)	311(100%)	
직업	학생	47(37.0%)	55(55.6%)	46(55.4%)	148(47.9%)	$\chi^2=18.336$ df=12 p=.106
	공무원	2(1.6%)	4(4.0%)	2(2.4%)	8(2.6%)	
	회사원	17(13.4%)	8(8.1%)	9(10.8%)	34(11.0%)	
	사업	21(16.5%)	9(9.1%)	5(6.0%)	35(11.3%)	
	주부	12(9.4%)	9(9.1%)	7(8.4%)	28(9.1%)	
	무직	11(8.7%)	2(2.0%)	4(4.8%)	17(5.5%)	
소 계		127(100%)	99(100%)	83(100%)	309(100%)	

표4-4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 일반적 특성 교차표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좋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름		
성별	남자	11(29.7%)	30(38.5%)	29(46.8%)	37(27.4%)	107(34.3%)	$\chi^2=8.070$ df=3 p=.045
	여자	26(70.3%)	48(61.5%)	33(53.2%)	98(72.6%)	205(65.7%)	
소 계		37(100%)	78(100%)	62(100%)	135(100%)	312(100%)	
연령	10대	17(45.9%)	11(14.1%)	10(16.1%)	33(24.4%)	71(22.8%)	$\chi^2=32.349$ df=12 p=.001
	20대	9(24.3%)	19(24.4%)	14(22.6%)	50(37.0%)	92(29.5%)	
	30대	5(13.5%)	19(24.4%)	12(19.4%)	21(15.6%)	57(18.3%)	
	40대	2(5.4%)	16(20.5%)	12(19.4%)	21(15.6%)	51(16.3%)	
	50대 이상	4(10.8%)	13(16.7%)	14(22.6%)	10(7.4%)	41(13.1%)	
소 계		37(100%)	78(100%)	62(100%)	135(100%)	312(100%)	
종교	기독교	8(22.2%)	17(21.8%)	19(31.7%)	43(31.9%)	87(28.2%)	$\chi^2=19.495$ df=9 p=.021
	천주교	6(16.7%)	13(16.7%)	8(13.3%)	10(7.4%)	37(12.0%)	
	불교	6(16.7%)	20(25.6%)	16(26.7%)	16(11.9%)	58(18.8%)	
	기타	16(44.4%)	28(35.9%)	17(28.3%)	66(48.9%)	127(41.1%)	
소 계		36(100%)	78(100%)	60(100%)	135(100%)	309(100%)	
최종 학력	초등 중퇴, 졸업	-	-	1(1.6%)	2(1.5%)	3(1.0%)	$\chi^2=18.786$ df=15 p=.224
	중등 중퇴, 졸업	14(37.8%)	14(17.9%)	8(12.9%)	26(19.3%)	62(19.9%)	
	고등 중퇴, 졸업	13(35.1%)	30(38.5%)	23(37.1%)	47(34.8%)	113(36.2%)	
	전문대 중퇴, 졸업	5(13.5%)	18(23.1%)	14(22.6%)	18(13.3%)	55(17.6%)	
	4년제대학 중퇴, 졸업	5(13.5%)	14(17.9%)	15(24.2%)	38(28.1%)	72(23.1%)	
	대학원 이상	-	2(2.6%)	1(1.6%)	4(3.0%)	7(2.2%)	
소 계		37(100%)	78(100%)	62(100%)	135(100%)	312(100%)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1(2.8%)	3(3.9%)	5(8.2%)	4(3.1%)	13(4.3%)	$\chi^2=8.084$ df=12 p=.779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6(16.7%)	15(19.5%)	13(21.3%)	30(23.1%)	64(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10(27.8%)	17(22.1%)	17(27.9%)	35(26.9%)	79(26.0%)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6(16.7%)	17(22.1%)	17(27.9%)	29(22.3%)	66(21.7%)	
	400만원 이상	13(36.1%)	25(32.5%)	12(19.7%)	32(24.6%)	82(27.0%)	
소 계		36(100%)	77(100%)	61(100%)	130(100%)	304(100%)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	2(2.6%)	2(3.2%)	2(1.5%)	6(1.9%)	$\chi^2=12.378$ df=12 p=.416
	어려운 편이다	3(8.1%)	15(19.2%)	13(21.0%)	17(12.7%)	48(15.4%)	
	보통이다	31(83.8%)	55(70.5%)	43(69.4%)	104(77.6%)	233(74.9%)	
	풍족한 편이다	2(5.4%)	4(5.1%)	4(6.5%)	11(8.2%)	21(6.8%)	
	매우 풍족하다	1(2.7%)	2(2.6%)	-	-	3(1.0%)	
소 계		37(100%)	78(100%)	62(100%)	134(100%)	311(100%)	
본인의 의식	보수적이다	2(5.4%)	14(17.9%)	22(35.5%)	22(16.4%)	60(19.3%)	$\chi^2=45.176$ df=9 p=.000
	개방적이다	25(67.6%)	17(21.8%)	10(16.1%)	44(32.8%)	96(30.9%)	
	보통이다	10(27.0%)	47(60.3%)	30(48.4%)	65(48.5%)	152(48.9%)	
	기타	-	-	-	3(2.2%)	3(1.0%)	
소 계		37(100%)	78(100%)	62(100%)	134(100%)	311(100%)	
직업	학생	27(73.0%)	29(37.7%)	18(29.5%)	74(55.2%)	148(47.9%)	$\chi^2=43.515$ df=18 p=.001
	공무원	1(2.7%)	1(1.3%)	1(1.6%)	5(3.7%)	8(2.6%)	
	회사원	2(5.4%)	14(18.2%)	6(9.8%)	12(9.0%)	34(110.0%)	
	사업	3(8.1%)	10(13.0%)	11(18.0%)	11(8.2%)	35(11.3%)	
	주부	2(5.4%)	11(14.3%)	6(9.8%)	9(6.7%)	28(9.1%)	
	무직	-	6(7.8%)	8(13.1%)	3(2.2%)	17(5.5%)	
	기타	2(5.4%)	6(7.8%)	11(18.0%)	20(14.9%)	39(12.6%)	
소 계		37(100%)	77(100%)	61(100%)	134(100%)	309(100%)	

표4-5 문신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에 대한 인식 * 일반적 특성 교차표

		문신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문신에 대한 인식					전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반대한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성별	남자	7(29.2%)	40(29.6%)	36(39.1%)	20(39.2%)	4(40.0%)	107(34.3%)	$\chi^2=3.231$ df=4 p=.520
	여자	17(70.8%)	95(70.4%)	56(60.9%)	31(60.8%)	6(60.0%)	205(65.7%)	
소 계		24(100%)	135(100%)	92(100%)	51(100%)	10(100%)	312(100%)	
연령	10대	9(37.5%)	39(28.9%)	17(18.5%)	5(9.8%)	1(10.0%)	71(22.8%)	$\chi^2=42.766$ df=16 p=.000
	20대	9(37.5%)	46(34.1%)	28(30.4%)	8(15.7%)	1(10.0%)	92(29.5%)	
	30대	1(4.2%)	23(17.0%)	17(18.5%)	14(27.5%)	2(20.0%)	57(18.3%)	
	40대	2(8.3%)	19(14.1%)	14(15.2%)	11(21.6%)	5(50.6%)	51(16.3%)	
	50대 이상	3(12.5%)	8(3.9%)	16(17.4%)	13(25.5%)	1(10.0%)	41(13.1%)	
소 계		24(100%)	135(100%)	92(100%)	51(100%)	10(100%)	312(100%)	
종교	기독교	6(25.0%)	36(27.1%)	25(27.2%)	18(36.0%)	2(20.0%)	87(28.2%)	$\chi^2=9.224$ df=12 p=.684
	천주교	3(12.5%)	14(10.5%)	13(14.1%)	6(12.0%)	1(10.0%)	37(12.0%)	
	불교	3(12.5%)	20(15.0%)	21(22.8%)	11(22.0%)	3(30.0%)	58(18.8%)	
	기타	12(50.0%)	63(47.4%)	33(35.9%)	15(30.0%)	4(40.0%)	127(41.1%)	
소 계		24(100%)	133(100%)	92(100%)	50(100%)	10(100%)	309(100%)	
최종 학력	초등 중퇴, 졸업	-	2(1.5%)	-	1(2.0%)	-	3(1.0%)	$\chi^2=21.280$ df=20 p=.381
	중등 중퇴, 졸업	6(25.0%)	32(23.7%)	13(14.1%)	10(19.6%)	1(10.0%)	62(19.9%)	
	고등 중퇴, 졸업	10(41.7%)	48(35.6%)	38(41.3%)	13(14.1%)	4(40.0%)	113(36.2%)	
	전문대 중퇴, 졸업	3(12.5%)	19(14.1%)	24(26.1%)	8(15.7%)	1(10.0%)	55(17.6%)	
	4년제대학 중퇴, 졸업	4(16.7%)	30(22.2%)	16(17.4%)	18(35.3%)	4(40.0%)	72(23.1%)	
	대학원 이상	1(4.2%)	4(3.0%)	1(1.1%)	1(2.0%)	-	7(2.2%)	
소 계		24(100%)	135(100%)	92(100%)	51(100%)	10(100%)	312(100%)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	6(4.5%)	3(3.3%)	3(6.1%)	1(10.0%)	13(4.3%)	$\chi^2=21.945$ df=16 p=.145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4(17.4%)	26(19.7%)	22(24.4%)	10(20.4%)	2(20.0%)	64(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2(8.7%)	33(25.0%)	28(31.1%)	15(30.6%)	1(20.0%)	79(25.1%)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5(21.7%)	26(19.7%)	20(22.2%)	10(20.4%)	5(50.0%)	66(21.7%)	
	400만원 이상	12(52.2%)	41(31.1%)	17(18.9%)	11(22.4%)	1(10.0%)	82(27.0%)	
소 계		23(100%)	132(100%)	90(100%)	49(100%)	10(100%)	304(100%)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	3(2.2%)	2(2.2%)	1(2.0%)	-	6(1.9%)	$\chi^2=10.892$ df=16 p=.816
	어려운 편이다	2(8.3%)	21(15.7%)	16(17.4%)	6(11.8%)	3(30.0%)	48(15.4%)	
	보통이다	20(83.3%)	95(70.9%)	70(76.1%)	41(80.4%)	7(70.0%)	233(74.9%)	
	풍족한 편이다	2(8.3%)	12(9.0%)	4(4.3%)	3(5.9%)	-	21(6.8%)	
	매우 풍족하다	-	3(2.2%)	-	-	-	3(1.0%)	
소 계		24(100%)	134(100%)	92(100%)	51(100%)	10(100%)	311(100%)	
본인의 의식	보수적이다	-	21(15.7%)	17(18.5%)	20(39.2%)	2(20.0%)	60(19.3%)	$\chi^2=67.750$ df=12 p=.000
	개방적이다	16(66.7%)	61(45.5%)	11(12.0%)	6(11.8%)	2(20.0%)	96(30.9%)	
	보통이다	8(33.3%)	50(37.3%)	64(69.6%)	24(47.1%)	6(60.0%)	152(58.9%)	
	기타	-	2(1.5%)	-	1(2.0%)	-	3(1.0%)	
소 계		24(100%)	134(100%)	92(100%)	51(100%)	10(100%)	311(100%)	
직업	학생	17(70.5%)	73(54.5%)	43(47.8%)	12(23.5%)	3(30.0%)	148(47.9%)	$\chi^2=50.010$ df=24 p=.001
	공무원	1(4.2%)	4(3.0%)	2(2.2%)	1(2.0%)	-	8(2.6%)	
	회사원	-	16(11.9%)	12(13.3%)	6(11.8%)	-	34(11.0%)	
	사업	2(8.3%)	9(6.7%)	9(10.0%)	10(19.6%)	5(50.0%)	35(11.3%)	
	주부	1(4.2%)	12(9.0%)	9(10.0%)	5(9.8%)	1(10.0%)	28(9.1%)	
	무직	-	3(2.2%)	7(7.8%)	6(11.8%)	1(10.0%)	17(5.5%)	
	기타	3(12.5%)	17(12.7%)	8(8.9%)	11(21.6%)	-	39(12.6%)	
소 계		24(100%)	134(100%)	90(100%)	51(100%)	10(100%)	309(100%)	

표4-6 문신을 할 의향 * 일반적 특성 교차표

		문신을 할 의향					전체	
		하고 싶다	하고 싶지만 두려움	잘 모르겠다	할 의향이 없다	기타		
성별	남자	17(35.4%)	11(19.3%)	15(30.0%)	64(43.2%)	-	107(35.1%)	$\chi^2=12.214$ df=4
	여자	31(64.6%)	46(80.7%)	35(70.0%)	84(56.8%)	2(100%)	198(64.9%)	
소 계		48(100%)	57(100%)	50(100%)	148(100%)	2(100%)	305(100%)	p=.016
연령	10대	14(29.2%)	13(22.8%)	17(34.0%)	27(18.2%)	-	71(23.3%)	$\chi^2=14.715$ df=16
	20대	17(35.4%)	18(31.6%)	14(28.0%)	41(27.7%)	1(50.0%)	91(29.8%)	
	30대	8(16.7%)	10(17.5%)	7(14.0%)	31(20.9%)	-	56(18.4%)	
	40대	5(10.4%)	11(19.3%)	6(12.0%)	28(18.9%)	-	50(16.4%)	
	50대 이상	4(8.3%)	5(8.8%)	6(12.0%)	21(14.2%)	1(50.0%)	37(12.1%)	
소 계		48(100%)	57(100%)	50(100%)	148(100%)	2(100%)	305(100%)	p=.546
종교	기독교	11(23.4%)	13(22.8%)	13(26.0%)	50(34.2%)	-	87(28.8%)	$\chi^2=16.501$ df=12
	천주교	4(8.5%)	9(15.8%)	7(14.0%)	15(10.3%)	1(50.0%)	36(11.9%)	
	불교	4(8.5%)	11(19.3%)	10(20.0%)	27(18.5%)	1(50.0%)	53(17.5%)	
	기타	28(59.6%)	24(42.1%)	20(40.0%)	54(37.0%)	-	126(41.7%)	
소 계		47(100%)	57(100%)	50(100%)	146(100%)	2(100%)	302(100%)	p=.169
최종 학력	초등 중퇴, 졸업	-	1(1.8%)	-	2(1.4%)	-	3(1.0%)	$\chi^2=17.140$ df=20
	중등 중퇴, 졸업	11(22.9%)	11(19.3%)	16(32.0%)	24(16.2%)	-	62(20.3%)	
	고등 중퇴, 졸업	16(33.3%)	27(47.4%)	15(30.0%)	49(33.1%)	1(50.0%)	108(35.4%)	
	전문대 중퇴, 졸업	9(18.8%)	7(12.3%)	9(18.0%)	27(18.2%)	1(50.0%)	53(17.4%)	
	4년제대학 중퇴, 졸업	12(25.0%)	10(17.5%)	9(18.0%)	41(27.7%)	-	72(23.6%)	
소 계		48(100%)	57(100%)	50(100%)	148(100%)	2(100%)	305(100%)	p=.644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	1(1.8%)	5(10.2%)	7(4.9%)	-	13(4.4%)	$\chi^2=25.138$ df=16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12(25.5%)	6(10.9%)	7(14.3%)	37(25.7%)	-	62(20.9%)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10(21.3%)	14(25.5%)	13(26.5%)	40(27.8%)	-	77(25.9%)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10(21.3%)	10(18.2%)	14(28.6%)	29(20.1%)	1(50.0%)	64(21.5%)	
소 계		47(100%)	55(100%)	49(100%)	144(100%)	2(100%)	297(100%)	p=.067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	1(1.8%)	3(6.1%)	2(1.4%)	-	6(2.0%)	$\chi^2=20.415$ df=16
	어려운 편이다	8(16.7%)	5(8.8%)	5(10.2%)	28(18.9%)	1(50.0%)	47(15.5%)	
	보통이다	35(72.9%)	44(77.2%)	39(79.6%)	108(73.0%)	1(50.0%)	227(74.7%)	
	풍족한 편이다	5(10.4%)	5(8.8%)	1(2.0%)	10(6.8%)	-	21(6.9%)	
소 계		48(100%)	57(100%)	49(100%)	148(100%)	2(100%)	304(100%)	p=.202
본인의 의식	보수적이다	4(8.3%)	7(12.3%)	4(8.2%)	45(30.4%)	-	60(19.7%)	$\chi^2=62.551$ df=12
	개방적이다	32(66.7%)	21(36.8%)	15(30.6%)	24(16.2%)	-	92(30.3%)	
	보통이다	12(25.0%)	27(47.4%)	30(61.2%)	78(52.7%)	2(100%)	149(49.0%)	
	기타	-	2(3.5%)	-	1(0.7%)	-	3(1.0%)	
소 계		48(100%)	57(100%)	49(100%)	148(100%)	2(100%)	304(100%)	p=.000
직업	학생	27(56.3%)	32(56.1%)	30(61.2%)	57(39.0%)	-	146(48.3%)	$\chi^2=31.618$ df=24
	공무원	1(2.1%)	1(1.8%)	1(2.0%)	5(3.4%)	-	8(2.6%)	
	회사원	4(8.3%)	6(10.5%)	7(14.3%)	15(10.3%)	1(50.0%)	33(10.9%)	
	사업	4(8.3%)	2(3.5%)	4(8.2%)	21(14.4%)	-	31(10.3%)	
	주부	5(10.4%)	8(14.0%)	2(4.1%)	13(8.9%)	-	28(9.3%)	
	무직	-	2(3.5%)	1(2.0%)	14(9.6%)	-	17(5.6%)	
소 계		48(100%)	57(100%)	49(100%)	146(100%)	2(100%)	302(100%)	p=.137

표4-7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생각 * 일반적 특성 교차표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생각				전체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기타		
성별	남자	33(32.4%)	36(41.9%)	38(30.9%)	-	107(34.3%)	$\chi^2=3.508$ df=3 p=.320
	여자	69(67.6%)	50(58.1%)	85(69.1%)	1(100%)	205(65.7%)	
소 계		102(100%)	86(100%)	123(100%)	1(100%)	312(100%)	
연령	10대	25(24.5%)	11(12.8%)	35(28.5%)	-	71(22.8%)	$\chi^2=19.179$ df=12 p=.084
	20대	37(36.3%)	21(24.4%)	33(26.8%)	1(100%)	92(29.5%)	
	30대	16(15.7%)	19(22.1%)	22(17.9%)	-	57(18.3%)	
	40대	16(15.7%)	20(23.3%)	15(12.2%)	-	51(16.3%)	
	50대 이상	8(7.8%)	15(17.4%)	18(14.6%)	-	41(13.1%)	
소 계		102(100%)	86(100%)	123(100%)	1(100%)	312(100%)	
종교	기독교	28(27.7%)	23(27.4%)	35(28.5%)	1(100%)	87(28.2%)	$\chi^2=10.610$ df=9 p=.303
	천주교	12(11.9%)	10(11.9%)	15(12.2%)	-	37(12.0%)	
	불교	11(10.9%)	21(25.0%)	26(21.1%)	-	58(18.8%)	
	기타	50(49.5%)	30(35.7%)	47(38.2%)	-	127(41.1%)	
소 계		101(100%)	84(100%)	123(100%)	1	309(100%)	
최종 학력	초등 중퇴, 졸업	1(1.0%)	1(1.2%)	1(0.8%)	-	3(1.0%)	$\chi^2=15.570$ df=15 p=.411
	중등 중퇴, 졸업	22(21.6%)	10(11.6%)	30(24.4%)	-	62(19.9%)	
	고등 중퇴, 졸업	29(28.4%)	33(38.4%)	50(40.7%)	1(100%)	113(36.2%)	
	전문대 중퇴, 졸업	16(15.7%)	18(20.9%)	21(17.1%)	-	55(17.6%)	
	4년제대학 중퇴, 졸업	31(30.4%)	22(25.6%)	19(15.4%)	-	72(23.1%)	
소 계		102(100%)	86(100%)	123(100%)	1(100%)	312(100%)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1(1.0%)	7(8.4%)	5(4.1%)	-	13(4.3%)	$\chi^2=21.503$ df=12 p=.043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0(20.4%)	23(27.7%)	21(17.2%)	-	64(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22(22.4%)	19(22.9%)	38(31.1%)	-	79(26.0%)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19(19.4%)	14(16.9%)	32(26.2%)	1(100%)	66(21.7%)	
	400만원 이상	36(36.7%)	20(24.1%)	26(21.3%)	-	82(27.0%)	
소 계		98(100%)	83(100%)	122(100%)	1(100%)	304(100%)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	4(4.7%)	2(1.6%)	-	6(1.9%)	$\chi^2=15.444$ df=12 p=.218
	어려운 편이다	10(9.9%)	16(18.6%)	22(17.9%)	-	48(15.4%)	
	보통이다	78(77.2%)	60(69.8%)	94(76.4%)	1(100%)	233(74.9%)	
	풍족한 편이다	12(11.9%)	5(5.8%)	4(3.3%)	-	21(6.8%)	
	매우 풍족하다	1(1.0%)	1(1.2%)	1(0.8%)	-	3(1.0%)	
소 계		101(100%)	86(100%)	123(100%)	1(100%)	311(100%)	
본인의 의식	보수적이다	13(12.9%)	22(25.6%)	25(20.3%)	-	60(19.3%)	$\chi^2=16.251$ df=9 p=.062
	개방적이다	44(43.6%)	18(20.9%)	33(26.8%)	1(100%)	96(30.9%)	
	보통이다	43(42.6%)	45(52.3%)	64(52.0%)	-	152(48.9%)	
	기타	1(1.0%)	1(1.2%)	1(0.8%)	-	3(1.0%)	
소 계		101(100%)	86(100%)	123(100%)	1(100%)	311(100%)	
직업	학생	57(56.4%)	27(31.8%)	63(51.6%)	1(100%)	148(47.9%)	$\chi^2=23.449$ df=18 p=.174
	공무원	4(4.0%)	3(3.5%)	1(0.8%)	-	8(2.6%)	
	회사원	8(7.9%)	14(16.5%)	12(9.8%)	-	34(11.0%)	
	사업	7(6.9%)	12(14.1%)	16(13.1%)	-	35(11.3%)	
	주부	6(5.9%)	11(12.9%)	11(9.0%)	-	28(9.1%)	
	무직	3(3.0%)	8(9.4%)	6(4.9%)	-	17(5.5%)	
	기타	16(15.8%)	10(11.8%)	13(10.7%)	-	39(12.6%)	
소 계		101(100%)	85(100%)	122(100%)	1	309(100%)	

표4-8 연령과의 교차표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소계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	조직폭력배	36(19.3%)	57(30.5%)	41(21.9%)	27(14.4%)	26(13.9%)	187(100%)
	연예인	21(24.7%)	26(30.6%)	12(14.1%)	17(20.0%)	9(10.6%)	85(100%)
	스포츠스타	6(28.6%)	3(14.3%)	3(14.3%)	4(19.0%)	5(23.8%)	21(100%)
	기타	8(42.1%)	6(31.6%)	4(19.0%)	3(15.8%)	1(5.3%)	19(100%)
	전체	71(22.8%)	92(29.5%)	5(23.8%)	51(16.3%)	41(13.1%)	312(100%)
		$\chi^2=14.901$ $df=12$ $p=.247$					
문신한 사람의 예상분포	10만 이하	12(14.5%)	16(19.3%)	19(22.9%)	13(15.7%)	23(27.7%)	83(100%)
	50만 이하	21(25.6%)	26(31.7%)	9(11.0%)	19(23.2%)	7(8.5%)	82(100%)
	100만 이하	21(27.3%)	22(28.6%)	18(23.4%)	8(10.4%)	8(10.4%)	77(100%)
	200만 이하	6(22.2%)	11(40.7%)	5(18.5%)	3(11.1%)	2(7.4%)	27(100%)
	200만 이상	11(28.2%)	16(41.0%)	5(12.8%)	7(17.9%)	-	39(100%)
	전체	71(23.1%)	91(29.5%)	56(18.2%)	50(16.2%)	40(13.0%)	308(100%)
		$\chi^2=40.854$ $df=16$ $p=.001$					
문신을 하는 이유	위화감 조성	7(18.4%)	7(18.4%)	7(18.4%)	9(23.7%)	8(21.1%)	38(100%)
	호기심	6(10.5%)	16(28.1%)	9(15.8%)	13(22.8%)	13(22.8%)	57(100%)
	자기표현의 방식	43(26.4%)	55(33.7%)	31(19.0%)	21(12.9%)	13(8.0%)	163(100%)
	미용의 목적	15(29.4%)	13(25.5%)	9(17.6%)	8(15.7%)	6(11.8%)	51(100%)
	기타	-	1(50.0%)	-	-	1(50.0%)	2(100%)
	전체	71(22.8%)	92(29.6%)	56(18.0%)	51(16.4%)	41(13.2%)	311(100%)
		$\chi^2=25.718$ $df=16$ $p=.058$					
문신을 한 목적	위화감 조성	-	-	-	-	1(100%)	1(100%)
	호기심	-	3(60.0%)	-	1(20.0%)	1(20.0%)	5(100%)
	자기표현의 방식	-	7(46.7%)	2(13.3%)	3(20.0%)	3(20.0%)	15(100%)
	미용의 목적	-	6(31.6%)	3(15.8%)	4(21.1%)	6(31.6%)	19(100%)
	기타	-	-	-	-	-	-
	전체	-	16(40.0%)	5(12.5%)	8(20.0%)	11(27.5%)	40(100%)
		$\chi^2=4.972$ $df=9$ $p=.837$					
문신을 하고 난 후의 생각	후회했다	-	1(12.5%)	-	2(25.0%)	5(62.5%)	8(100%)
	좋았다	-	7(41.2%)	3(17.6%)	3(17.6%)	4(23.5%)	17(100%)
	그저 그랬다	-	6(46.2%)	2(15.4%)	3(23.1%)	2(15.4%)	13(100%)
	기타	-	2(100.0%)	-	-	-	2(100%)
	전체	-	16(40.0%)	5(12.5%)	8(20.0%)	11(27.5%)	40(100%)
		$\chi^2=10.652$ $df=9$ $p=.300$					
문신 시술 대상	의사	13(22.8%)	17(29.8%)	11(19.3%)	10(17.5%)	6(10.5%)	57(100%)
	미용사	8(21.1%)	12(31.6%)	7(18.4%)	6(15.8%)	5(13.2%)	38(100%)
	문신전문가	50(24.5%)	60(29.4%)	36(17.6%)	31(15.2%)	27(13.2%)	204(100%)
	기타	-	-	1(16.7%)	3(50.0%)	2(33.3%)	6(100%)
	전체	71(23.3%)	89(29.2%)	55(18.0%)	50(16.4%)	40(13.1%)	305(100%)
		$\chi^2=10.061$ $df=12$ $p=.611$					

제5장 문신에 대한 실정법의 실제와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

제1절 문신의 불법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문신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문신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전문 의료진이 시술하지 않으면 불법의료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불법 행위이다.

그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한 자’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2. 의료법 제 3절 제 2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과중한 형벌이 뒤 따른다.
3. 경범죄 처벌법 제1장 제1조 24호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도로·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병역법 제86조는 (도망·신체 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詐僞)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5.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정도에 따라
 - 가. 경도(輕度) -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로 합계면적이 30미만cm 미만인 경우인 경우 1급으로 현역입영 대상
 - 나. 중등도(中等度) -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는 3급으로 규정하여 현역입영대상
 - 다. 고도(高度) - 반흔 등의 정도가 상지·하지·체간 또는 배부 각각의 전체에 걸쳐 있거나 노출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보충역인 4급 판정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병대상자의 경우 문신의 반흔 정도가 고도일 경우 자의든 타의든 현역판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문신의 합법성에 대한 전망

문신에 대한 담론도 예술성에 관한 논의 보다는 합법성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문신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누가 문신을 시술 하느냐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문신으로 인한 사건과 그에 따른 판례들을 살펴보고 문신의 합법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판례 - 1>

우리 사회에서 문신 문제가 합법성으로 부각된 것은 2003년 6월 15일 문신 시술자 김 건원(본명 김 유미·30여)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 청년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받았다가 적발된 게 원인이 됐기 때문이었다.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2003년 8월 법원은 ‘문신 시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히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⁶⁹⁾

2004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김 씨가 예술적·위생적으로 타투를 해 온 점과 국내 타투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다른 모든 문신 시술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판결 직후 이러한 문신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다. 김건원씨의 구속 후 연세대 사회학과 조한혜정 교수, 가수 신해철씨 등 많은 이들이 탄원서를 내고 ‘타투 법제화 추진위원회’ 가 만들어졌다. 2003년 추진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을 통해 ‘문신은 국소 마취한 채 색소 침윤술로 색소를 피부에 착색하는 의료 행위’ 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문신은 마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색소 침윤술이 의료 행위라면 머리카락의 염색도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69) 오마이뉴스, “문신, 과연 불법의료행위인가”, 2003. 10. 30.

반박한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 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경일 사무관은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이 굳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모르겠지만 다른 대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김건원씨를 비롯한 ‘타투법제화추진위원회’ 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문제는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문신이 보건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료 행위에 해당 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관계 없는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결」 이동직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⁷⁰⁾’ 며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는다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 판례 - 2 >

병역법 위반 사례로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자 몸에 문신을 새긴 뒤 재 신검을 받아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 등 4명에 대해서 법원은 2004년 3월 25일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했다.

< 판례 - 3 >

문신은 군대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로의 진입을 제한한다. 2004년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신철수(남·27세·가명)씨는 ‘오로지 몸에 문신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됐다.⁷¹⁾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위배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문신의 위치·형태 및 노출 여부에 관계없이 문신 있는 자에 대해 불합격

70) 이종석, “문신행위도 ‘의료행위’ 인가”, 문화일보, 2003. 7. 18.

71) 김지우, “내 몸에 자유를 허하라,” 오마이 뉴스, 2005. 11. 2.

처리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결정,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 문신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 국가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채용 시 문신제한 유지를 필요로 한다며 권고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문신에 대한 불신임은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며 문신이 과거 범죄자였거나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 된다. 일반 선량한 대중들의 안전을 위해서 낙인찍힌 범죄자의 사회적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 들여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고쳐 2007년 상반기부터는 문신을 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다고 2006년 5월 3일 밝혔다.

위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도 문신이 합법화될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밝지 않다. 헌법 재판소가 소수의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보다는 의료계 다수의 공중 보건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신의 합법화를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신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식이다. 문신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다수의 국민들이 문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문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문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문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되면 합법화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또한 외국처럼 일정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시술자에게 면허를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보다 빨리 합법화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미용으로서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

1.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보완점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신시술이 가져올 수 있는 신체적인 위험이나 문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문신면허제도 도입」과 같은 합리적인 입법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신의 문제가 현재 미용계와 의학계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아니면 두 분야를 아우르는 분야로서 존재 할 것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문신의 결과가 디자인적 요소로서 시술받는 사람의 만족으로 다가가는 미적 부분이라면 미용학으로 평가되어지고 미용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면 현재 공중위생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막연하게 명명 되어진 미용 분야를 메이크업, 헤어, 피부, 문신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미용 문신 시술 상의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인 소독과 위생이나 감염과 전염 등의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완되고, 법적인 여러 절차들이 정착된다면, 지금 까지 음성적으로 시술되던 문신이 양성적인 방향으로 되어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시술받는 사람에 대한 위생적인 보호도 이루어져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국내의 문신 시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급성장하고 미용 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하여 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확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반면 의료계의 측면에서 보면, 문신은 피부에 시술하기 때문에 세세한 시술 과정, 위험 부담, 예비 조치와 사후 조치 등이 위생학에 연관한 것으로 의학적인 부분들이 항상 고려되어야 하고 유사 마취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료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문신을 의료 행위로 유권 해석한 이후 현행법상 이 같은 문신 행위를 면허 의사가 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분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문신이 의료 행위에 속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술적인 문제의 해결과 동반하여야 할 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의학계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단점이며 이용 기구 및 미용 기구의 종류·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 기준 및 방법도 같은 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서로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간이 간다면 시간이 가는 사이에도 많은 문신사나 시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갈등과 희생자들이 발생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때문에 가능한한 이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문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낸 후 정부 기관, 의료계, 미용업계, 그리고 예술계와 문신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마련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신에 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미국에서는 SPCP(The Society of Permanent Cosmetic Professionals) 영구화장 전문가협회가 1990년 설립되어 비영리 전문 직종 협회로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큰 퍼머넌트 메이크업협회로 활동하고 있다. SPCP는 영구화장술 사업에 안정성과 우수성을 기준으로 교육과 산업 지침을 제공 하여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인증해 주는 공공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국내처럼 제재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 등 2개 주를 제외하고는 문신 행위가 모두 합법화되어 있다. 뉴욕주 등 11개 주는 면허제도와 위생 기준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매사추세츠주는 허가제로 문신을 허용하고 있고 뉴저지주에서도 4시간이상 적십자에서 위생교육을 받고 2000시간 이상 타투 이스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뉴욕 시와 캘리포니아주 법에 나와 있는 문신의 규제는 시술 자격과 문신 시술의 절차, 소독, 스튜디오 소유주의 의무, 손님들에 대한 규제, 정보, 청소, 오염된 폐기물 처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즉, 주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통과하고 문신규제법에 의해 시술 면허를 신청하여 법이 규제하는 위생 부분과 규정을 지키면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신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술되며 사업장의 오너와 자격증을 가진 시술자는 문신의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모든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에 철저한 위생 관리 책임이 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 외 다른 주들도 세세하게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에 관련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문신 시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다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술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철저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신 사업장의 시술행위에 대한 모든 규제는 각 주 자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공중보건부(DPH)나 미국식품의약청(FDA) 등 위생당국에서도 문신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면 에이즈나 B형·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문신이 합법화 되어 있는 미국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미국 법률 사례

가. 뉴욕시 행정법상의 문신에 관한 사항

(뉴욕시 행정법 17권 3장 면허 및 인가 7부 문신규제법)

(1) 문신의 정의

(가) 문신은 피부의 가장 바깥 층 아래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지울 수 없게 만든 사람의 신체에 행한 어떤 표시를 의미한다.

(나) 문신 시술자들은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면허에 관한 원칙

(가) 그 누구도 문신 행위를 하는 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신을 시술할 수 없다.

(나) 면허에 관한 조항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문신면허 응시, 절차, 요구조건

(가) 문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건부의 위원(이하 위원)이 규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문신 면허를 위해 지원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요청서에는 위원이 지원자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준 문신사에게는 면허를 발행하지 않는다.
- (다) 문신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험을 치른다.
 - ① 폐기물 처리 방법 ② 질병 관리 ③ 문신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연합회에 의해 추천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④ 감염관리 등
- (라) 문신 면허를 위한 지원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 (마) 위원회는 이러한 시험을 보기 위해 문신 면허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 간행물을 간행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건강관련 정보나 기술이 있을 때에 이러한 정보 간행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바) 2년에 한번 100달러의 면허 요금을 내야한다.

(4) 만료 · 전환 · 양도 · 전시

- (가) 모든 면허는 번호로 구별하고, 발행 날짜로부터 2년에 만료가 된다.
- (나) 어떠한 면허도 양도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
- (다) 발급 받은 면허증과 손님들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면허 소유자가 문신을 행하는 영업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 (라) 면허소유자가 문신 행위를 광고하기 위한 모든 광고는 ‘뉴욕시의 보건과 정신 위생 부서에 의한 면허’ 라는 문구와 각 면허 소유자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5) 위생 상태 · 물리적 시설 · 장비 · 절차

- (가) 문신 행위를 하는 한명 이상의 문신 시술자가 있는 모든 문신 기관, 상점, 영업소는 항상 청결과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보건부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손님을 위한 알맞은 환풍기, 빛, 폐기물 용기, 냉·온수가 나오는 세척 시설, 위생비누,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나) 보건부는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을 할 때 라텍스장갑과 보호복을 입고 손을 세척할 것을 권하는 규정을 공표(promulgate)한다.
- (다) 보건부는 문신 절차와 바늘의 폐기, 문신 기구의 알맞은 소독에 대한 규정을 공표한다.

- (라) 보건부는 보건부에 의해 결정된 피부 병변(病變)이나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신을 하는 것에 따른 규정을 공표한다.
- (마) 누구도 18세 이하 사람에게에는 문신을 할 수 없다.
- (바) 문신 절차가 끝난 후에 모든 시술자는 문신된 피부의 알맞은 케어(care)에 대한 문서로 된 지시 사항을 시술 받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 (사) 모든 시술자는 위원이 요구하는 시술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문신한 날짜 그리고 다른 정보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위원이 결정한 어떠한 정보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아) 문신이나 피어싱 스튜디오에서 시술 할 때 쓰이는 주사기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장비들을 청결하게 다루기 위해 멸균 작업을 요한다.
- (자) 주사기는 한 명이 사용한 후에는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새로운 주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자문 위원회

- (가) 보건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명의 의장과 8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문신 행위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2 인
 - ② 실전 문신 시술 행위 훈련을 한 자 2 인(시장에 의해 임명된 관계인 1인, 시의회 대변인에 의해 임명된 1인)
 - ③ 위생 절차와 멸균 행위에 대한 실무전문가 2인(시장에 의해 임명된 관계인 1인, 시의회 대변인에 의해 임명된 1인)
 - ④ 피부학에 면허를 가진 2 인 - 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부서 안에 두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보상 없이 2년 동안 봉사해야 하고 추가 기간 동안 재임명될 수 있다. 각 구성원은 뉴욕시 안에 그들의 우선하는 비즈니스 장소를 가지거나 거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에 의해 임명된다.
- (나)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조항을 만들어 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들을 위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나.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 안전 규약

(Chapter 7.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 화장)

(1) 문신의 정의

- (가) 문신은 피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표시나 모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뚫으로써 인간의 피부 표면 아래 색소를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신체 피어싱은 주입하는 보석 또는 다른 장식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몸안에 개방되어 있는 창조물을 의미한다. 귀, 입술, 혀, 코, 눈썹에 피어싱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신체 피어싱은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귀 피어싱도 포함한다.
- (다) 영구적인 화장법은 피부의 색깔 또는 다른 외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인간의 피부 아래 색소를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구적인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우, 입술 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

- (가)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는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인 화장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위해 멸균, 위생, 안전 기준을 설립한다. 이 부서는 이러한 기준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 (나)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는 직업의 안전과 보건의 조항, 산업 관련 부서의 Blood borne 병원균 기준, 범위를 만들고, 받아들이고,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은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도구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기관에 의해 관리 된다. 이 기준은 용품과 도구의 오염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시술받는 사람을 알맞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다.

(3)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인 화장법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군(郡;미국 내 주(州)의 바로 아래 행정단위)의 보건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등록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을 따라야 한다.
 - ① 군 보건부서의 보건 기준 복사본과 기준에 부합하는 서약, 보건 기준 의안(議案)

승인서 사인(sign)을 포함한다.

- ②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등록자의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를 함께 군 보건 부서에 제출한다.
- ③ 한번에 25달러 등록수수료를 내야하고 군 보건 부서에 직접 지불한다.
- ④ 군 보건 부서에 매년 105달러의 검열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가)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은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 화장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면허, 훈련, 위생, 그리고 다른 목적에 관하여 협의회에 입법시키는 것을 추천하는 목적을 위해 형성되어진 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활동한다.
- (나) 특별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에 의해 임명되어진 지역 건강 관리자 10명으로 구성되고 이발업과 미용업의 주 협회 대표, 주 안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와 외과 의사, 비영리 전문 신체 피어싱사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문신시술사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영구 화장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미용업 연합대표, 지역 건강 부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 대표를 포함한다.
- (다)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부터 보조자 역할을 할 3명의 나머지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한국 미용문신 시술행위 규제법안 제안

앞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의 합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은 대안적인 법안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아래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가칭 “미용 문신 시술 행위 규제 법안” 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미용문신 시술행위 규제법안” 제안

가. 면허에 관한 원칙

- (1) 문신 시술 면허를 가진 자만이 문신시술 행위를 할 수 있다.
- (2) 면허에 관한 조항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는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나. 문신 면허 응시, 절차, 요구 조건

- (1)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위원(이하 위원)이 규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문신 면허를 위해 지원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요청서에는 위원이 지원자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2)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준 문신사에게는 면허를 발행 하지 않는다.
- (3) 문신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험을 치른다.
 - (가) 폐기물 처리 방법 (나) 질병 관리 (다)문신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연합회에 의해 추천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라) 감염 관리 (마) 색채학
 - (바) 문신 문양 디자인 등
- (4) 문신 면허를 위한 지원은 2000시간 이상의 문신사 교육을 받고 위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수반 되어야 한다.
- (5) 어떠한 면허도 양도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
- (6) 발급 받은 면허증과 손님들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면허 소유자가 문신을 행하는 영업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다. 위생 상태 · 물리적 시설 · 장비 · 절차

- (1) 문신 행위를 하는 한 명 이상의 문신 시술자가 있는 모든 문신 기관, 상점, 영업소는 항상 청결과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알맞은 환풍기, 폐기물 용기, 냉·온수가 나오는 세척 시설, 위생 비누,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보건복지부는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동안 라텍스장갑과 위생복을 입고 손을 세척할 것을 규정으로 공표한다.
- (3) 작업에 쓰여진 도구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 멸균을 치밀히 실시하여 문신이 병균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4) 피부 병변(病變)이나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에는 문신 시술을 금지한다.
- (5) 누구도 18세 이하 사람에게에는 문신을 할 수 없다.
- (6) 문신 절차가 끝난 후에 모든 시술자는 문신된 피부의 알맞은 관리에 대한 문서로 된 지시 사항을 시술 받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 (7) 모든 시술자는 시술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문신한 날짜 그리고 다른 정보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 (8) 특히, 바늘은 일회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재사용 해야 하는 경우에는 튜브, 팁, 바늘 등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멸균해야 한다.(금속이 주류인 문신 기구들의 멸균은 오토크레이브(증기멸균기)와 건열멸균기로 실시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별첨1 참조
- (9) 일회용인 소모품은 즉시 폐기하여 반복 사용을 금해야 한다.

라. 자문 위원회

- (1) 보건복지부에는 정부기관, 의료계, 미용업계, 그리고 예술계와 문신사 등이 참여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시(市) 안에 그들의 비즈니스 장소를 가지거나 거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만들어 규정 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문신은 본디 매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발생했다. 문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주술적 의미의 표시, 혹은 사회적 신분이나 집단의 표시 외에도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기 위한 행위로 행하여져 왔다. 같은 행위와 표현이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였으나, 문신이 가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어느 때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문신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러 범죄자의 표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종교인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에 흠을 내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치부되어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세계와의 소통이 빈번해지고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신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틀이 깨지고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신을 단순한 표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적 정서를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미용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이나 규정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외국에서는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신체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문신이나, 문신을 시술하는 문신사 혹은 반영구 화장 전문가의 활동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 문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부각시키고 미용으로서의 자기 표현이나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문신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문신에 대하여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신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신세대들의 사고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바와 같이 보다 긍정적이다.

1960년대 경범죄로 규정되었던 미니스커트와 장발 등이 2007년에야 비로소 법률적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지금 미니스커트나 장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과 규정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신에 관한 법률적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자아 표현과 자아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문신 역시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바디아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시술과정에서 신체 피부에 색소침윤을 하기 위해 피부를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의료 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사회 통념으로 의사 외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문신사들이 하는 행위는 이런 관점에서 위법 행위로 단정 지어지고 있다. 실제로 위의 법에 근거하여 문신시술자가 구속되었고,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시술자의 구속과 관련해서 문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실제 문신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에 대한 현재의 규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문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의 그늘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일반인들의 문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외국의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가능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은 일반 대중의 법 감정에 의지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점에 의거하여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문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문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조직폭력배라고 응답하였으며, 조직폭력배의 문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스포츠스타나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문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신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53%)와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16%)라는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기위해서(12%)라는 응답보다 많아 문신을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43%가 문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는데, 화장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표현 방식으로 활용되는 문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52%)이 반대한다는 응답(19%)보다 배 이상

많이 나타난 것은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문신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응답에는 1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문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문신 후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는 46%가 좋았다고 응답했고, 19%만이 후회했다고 응답하여 문신 후 좋은 감정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신을 받고 싶은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67%가 문신전문가라고 답해 앞으로 문신이 합법화된다면 미용사들도 이에 관한 면허를 취득하고 문신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여섯째, 문신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61%가 문신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앞으로 문신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9%가 잘 모르겠다, 33%가 찬성한다, 28%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일곱 번째, 문신시술행위를 합법화 했을 때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신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시술행위를 하게 하자는 응답(3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결과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면허 제도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이에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 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여 문신 면허 제도를 포함한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 등 2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화 되어 있었고, 뉴욕주 등 11개 주는 면허제도와 위생 기준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주들 또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그 중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정한 조건 하에 문신에 관한 면허 시험을 치루고 있었으며, 문신 시술시의 위생 상태, 물리적 시설, 장비, 절차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한 문신시술자에 대해서는 문신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엄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은 조직폭력배의 문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의 문신처럼 미용목적의 문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용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의료계와 미용계의 시술 목적과 방법 등 실제의 문제들을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 서로에게 지속적인 발전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미용인은 소독과 위생의 철저한 교육을, 의사는 미용적인 디자인 감각과 인체예술에 대한 이해를 보완한다면 보다 차원이 높은 문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1번과 8번, 그리고 9번 문항의 분석을 살펴보면 문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미래 사회에서는 문신이 보편화 될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불법의 논란이전에 문신 시술을 받고자하는 젊은 세대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1.(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자외선소독 : 1cm²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 나.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준다.
- 다.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준다
- 라.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 마.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 바.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 사.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 별첨2.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법제 명 변경 및 일부개정2006.07.27.**

("의료기기법시행규칙"에서 변경)

별표 1.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관련)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기를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 (1) 1등급 :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 (2) 2등급 :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 인체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4) 4등급 : 인체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중추신경계·중앙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의 인체 삽입여부

(2) 인체 내 삽입·이식기간

(3) 의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체내(구강내를 제외한다)에서의 화학적 변화 유무

2. 등급의 지정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중분류하며,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소분류하여 소분류된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선미 외. 『피부과학』. 서울: 현문사, 2006.
- 송연숙 외. 『The Art of Semi Permanent Make-up』. 대전: 대경출판사, 2003.
- 안지현 외. 『Micro pigmentation-영구화장』. 서울: 도서출판한미의학, 2004.
- 이진명. 『영구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실제』. 여문각, 2005, p.20.
-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열화당, 1987.
- 전선정 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01.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 1999.
- 조현설.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출판사, 2003.
- 최국주. 『진짜미인 피부미인』. 서울: 동명사, 2002.
- 길버트, 스티브.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이순호 역. 서울: 르네상스, 2004.
- 리켓, 존. 『얼굴문화, 그 예술적 위장』. 이영식 역. 서울: 보고싶은 책, 1996.
- 맥닐, 대니얼. 『얼굴』. 안정희 역.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4.
- 베체즈, 마누엘. 『문신(文身)』. 안금영 역. 서울: 사람과 책, 1996.
- 아브릴, 니콜. 『얼굴의 역사-얼굴을 테마로 다시 쓰는 문화와 예술의 역사』. 강주현 역.
서울: 작가정신, 2001.
- 에빈, 빅토리아. 『신체장식』. 임숙자 역.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1988.
- 엘리아스, 노르베르트. 『문명화과정 1』. 박미애 역. 서울: 한길사, 1996.
- 잭스, 리처드. 『세계사 속의 토픽』. 윤영호 역.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1.
- 퐁타넬, 베아트리스. 『치장의 역사-아름다움을 향한 여성의 욕망, 그 매혹의 세계』.
김보현 역. 서울: 김영사, 2004.
- 크레이크, 제니퍼. 『패션의 얼굴』. 정인희 역. 서울: 푸른솔, 2001.
- 하루야마 유키오. 『화장의 역사』. 김기연 역. 서울: 사람과 책, 2004.
- Astrid, Lange. 『Permanent Make up - Anwendungen und Techniken』. Furth: Filander Verlag, 2001.
- Aveline, Eric. Chrguer, Joyce. 『Temporary Tattoo』. New York: Firefly, 2001.
- Australian Institute of permanent make up. 『Australian Institute of permanent

- make up - Basic Training Guide』 . Parkavenue: ALPM, 2000.
- Burnam, Tom. 『The Dictionary of Misinformation』 . New York: Powre House Books, 1998.
- Dale Rio & Eva Bianchini. 『TATTOO』 . London: COURAGE Books, 2004.
- Gilbert, Steve. 『Tattoo History: A Source Book』 . New York: Juno Books, 2000.
- Gladsjo, Leslie Asako Women Make Movies. 『Stigmata the transfigured body』 .
New York: distributed by Women Make Movies, 1992.
- Habnit, Eleonra. 『Permanent Make up and Reconstructive Tattooing』 . New York:
Schiffer Pub, 2001.
- Hambly, W.D. 『The History of Tattooing its Significance』 . London: Witherby, 1998.
- Karl Groning, 『Decorated Skin』 ,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 Maarten Hesselt van Dinter, 『The World of TATTOO - An Illustrated History』 , KIT
Publishers, 2005, pp.26-27.
- Mckinney, Chris. 『The Tattoo』 . Hawaii: Booklines Hawaii Ltd., 2000.
- Schiffmacher, Henk. 『Tattoo』 . Boston: Taschen, 2000.
- Terisa, Green. 『Tattoo Encyclopaedia』 . Simon & Schuster, 2003.
- Thompson, Earl. 『Tattoo』 . New York: Rosen Pub Group, 2001.

학위 논문

- 김경숙. 『신체미술에 나타난 분장(Make-up)연구』 .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임정.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和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바디아트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영경.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Art)메이크업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化粧文化 비교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향수. 『패션에 있어서의 보디페인팅과 따뚜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희영. 『現代아트메이크업의 繪畵的 傾向과 技法에 관한 研究』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문정현.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연구-지역특성과 시대변화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문혜경. 『심리적 특성과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 대구 카톨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박지현. 『현대 한국사회의 ‘몸관리’ 유행의 사회학적 의미』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희정. 『회화적 메이크업의 경향과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효정.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원경희. 『페미니스트 신체미술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은임. 『화장 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정후. 『現代女性服飾에 나타난 안티패션(Anti-Fashion)에 관한 연구-1960년부터
1980년을 中心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화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현주. 『타투(Tattoo)미학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지영. 『반영구 화장과 문신 비교 연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사라. 『퍼머넌트 메이크업 이미지 구성과 활용방안』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복희. 『연지화장 연구』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최순덕. 『여대생들의 화장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화장행태와의 관계』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함은주.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에 있어 지각된 위험 및 신체이미지가 태도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지현. 『現代메이크업에 나타난 文身類型研究』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홍인자. 『한국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 이후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기 간행물

- 고혜정. 『한국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피부미용교육학술지. 제1권 3호. 2003. pp.11-23.
- 김재숙 외. 『바디이미지 연구(1)-여성의 이상적 미(美), 바디이미지와 외모 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의류학회지. 25권 5호. 2001. pp.969-980.
- 김희숙. 『20C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 문화 비교 연구』 . 한국복식학회. 제50권 1호. 2000.
-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6)』 . 녹십자의보 제 28권 제 6호. 2000.
- 문형진. 『문신의 습속과 그 유래』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제 4호. 2000.
- 배수현. 『女大生の 化粧文化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분석』 . 사회과학논집. 제9호.
pp.279-302.
- 양순재 외. 『문신 및 그 제거술에 관한 연구』 . 대한성형외과 학회지. 제13권 4호. 1986.
- 이효진. 『현대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pp.52-68.
- 오세원. 『문신, 자해흔, 담뱃불지짐에 대한 장병들의 태도』 . 신경정신의학. 제22권 2호.
1983. pp.204-211.
- 이승자. 『여성들의 화장실태와 화장지식 및 화장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미용학회지.
제7권 3호. 2001. pp.39-53.
- 이현주. 『원시미술에 나타난 바디아트 연구』 .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 4호 2권. 2003.
- 이쿠오 다이보(大坊曙夫). 『화장행동의 사회심리학-아름다움의 사회성-』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4권 제3호. 2002. pp.223-228.
- 이화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복식학회. 제 52권 8호. 2002. pp.137-149.
- 윤정혜 외. 『복식에 나타난 문신 룩(Tattoo Look)패션의 표현 특성』 . 한국복식학회.
제 51권 3호. 2001. pp.87-98
- 장경애 외. 『Alexandrite 레이저를 이용한 눈썹 문신 제거』 . 대한피부과학회지.
제 37권 4호. 1999. pp.444-448.
- 히로토 무라사와 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외견의식의 비교-한일 화장관 비교 연구 2-』 .
韓·中·日 美術解剖學심포지엄. 단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 2003.
- 황춘섭 외. 『마오리族 傳統 復飾과 文身 考察』 . 복식문화연구 제 3권 제 2호. 1995.

- pp.241-260. Cheng.
- Cronin, T.A. 『Tattoos, Body Piercings and Other Skin Adornments』.Skin & aging.
vol. 11 No.4. HMP COMMUNICATIONS., 2003. 48-55.
- Ferre,. p. Lichenoid. 『Dermatitis Caused by Tempoary Tattoos』. Cosmetic Deratology-CedarKnolls-vol.
15 No. 3. Reed Elsevier Medical Publishing Co., 2002. 11-14.
- Fisher, J. A. 『Tattooing the Body, Marking Culture』. Vol. 8 No. 4.Body and
Society. Sage publications, 2002. 91-108.
- Rivera, Patricia V. 『Find More permanent Way to Get Rid Of Wrinkle』.Neysnet 5,
May 1, 2003.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ohaworld.com>
<http://cyworld.nate.com/club>
http://club.cyworld.nate.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680110#
<http://www.janup.com>
<http://www.koreatattoo.co.kr>
<http://www.maniatattoo.co.kr>
<http://micropigmentation.org>
<http://www.oktattoo.co.kr>
<http://www.onetattoo.net>
<http://www.permierpignents.com>
<http://www.startattoonet.co.kr>
<http://www.tattooadditions.co.kr>
<http://www.tattoo.co.kr>
<http://www.tattoos.com>
<http://www.tattooorld.net>
<http://www.tattoorepublic.co.kr>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최근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문신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묻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새로운 대중문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신의 합법화 여부와 그 방안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문신 규제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조선대학교 디자인경영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강 은 주

조사지역 : _____광역시/도 _____시/군	조사일시 : 2006년 9월 ____일
조사원 :	

※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신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2. 문신하면 떠오르는 대상은?

- ① 조직 폭력배 ② 연예인 ③ 스포츠스타 ④ 기타()

3. 귀하께서는 문신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4번 문항으로) ② 없다(6번 문항으로)

4. 문신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① 조직폭력배 ② 연예인 ③ 스포츠스타 ④ 일반인 ⑤ 기타

5. 문신을 보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5-1 조직폭력배의 문신을 보았을 때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5-2 연예인의 문신을 보았을 때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5-3 스포츠스타의 문신을 보았을 때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5-4 일반인의 문신을 보았을 때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6. 다음 그림은 문신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귀하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6-1 < 사진 1 >이 주는 이미지는?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6-2 < 사진 2 >가 주는 이미지는?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6-3 < 사진 3 >이 주는 이미지는?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6-4 < 사진 4 >가 주는 이미지는?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6-5 < 사진 5 >가 주는 이미지는?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만 이하 ② 50만 이하 ③ 100만 이하 ④ 200만 이하 ⑤ 200만 이상

8. 귀하께서는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왜 문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 ② 호기심에
- ③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 ④ 화장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 ⑤ 기타()

19. 만일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다면 다음 중 어느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신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게 한다.
- ②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한다.
- ③ 미용목적의 문신은 미용사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위생부분에 대한 엄격한 지도아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다.
- ⑤ 기타()

20. 문신을 합법화하되 문신의 유형을 규제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 ① 문신의 크기 ② 문신 그림의 종류 ③ 연령제한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2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2. 귀하의 연령은 _____세

23. 귀하의 혼인상태 ①배우자 있음 ②배우자 사망 ③이혼 ④별거 ⑤미혼

2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 기타)_____

2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졸업 ③ 중학교 중퇴·졸업
- ④ 고등학교 중퇴·졸업 ⑤ 전문대 중퇴·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중퇴·졸업
- ⑦ 대학원 이상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디자인경영학과	학 번	20047528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강 은 주 한문 : 姜 銀 珠 영문 : Kang Eun-ju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40번지 주공아파트 103동 1003호				
연락처	061-330-3292	E-MAIL	juju3945@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Legalization of Tattooing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6년 12월 28일

저작자: 강 은 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